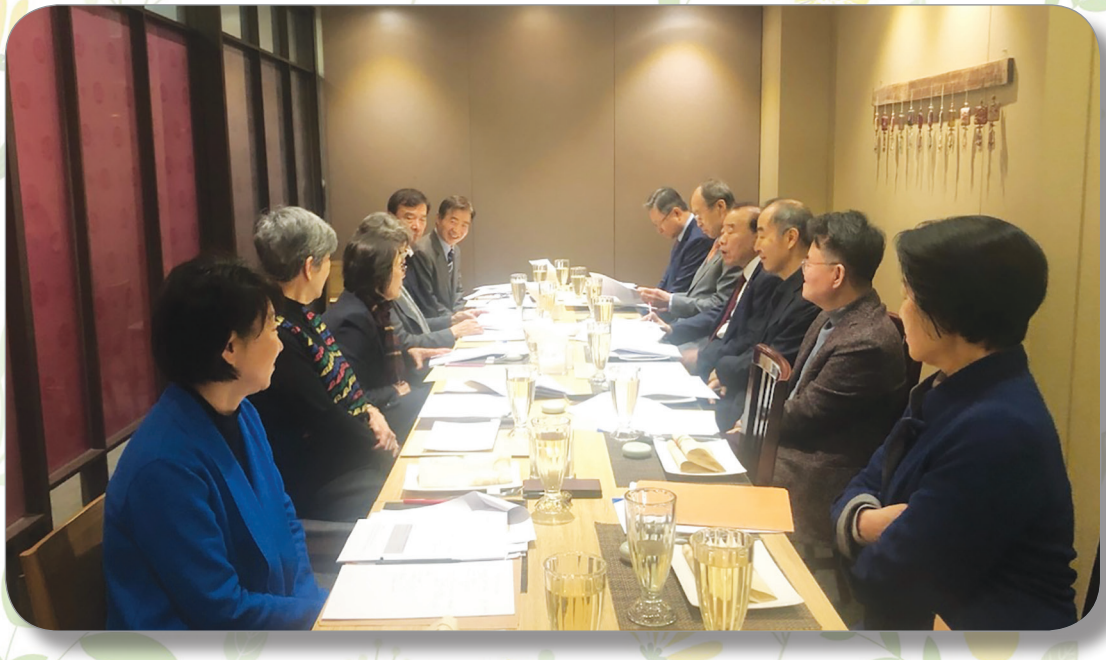
통권 487호

2024 03

가정상담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소의 2024년도 정기 전기 이사회가 지난 2월 22일 열려 2023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관련 기사 34면)

지난 2월 22일 본소 대강당에서 가정문제의 예방과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김병후 원장(정신과전문의, 본소 이사)의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가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는 그간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강의에서 다시 대면강의로 전환하고 시행된 첫 공개강좌로 많은 수강생이 참석해 강의를 들었다. (관련 기사 34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청 : 청렴을 약속합니다.
렴 : 염려 마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니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SNS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orealawhome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legalaidcenter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한국가정법률상담소)

4 • 이달의 메시지
6 • 특집 ❶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3년도 상담통계
21 • 특집 ❷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3년도 상담통계 | 다문화가정 통계
23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㊽
24 • 특별기획 | 둥지교실 Ⅷ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 ②
26 • 가정폭력상담실
29 • 어떻게 할까요
31 • 좋은 책
이주하는 인류
32 • 실무수습 소감문
34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36 • 소송구조

발행인 겸 편집인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 인쇄인 • 동아서적(주) 대표이사 이상업 | 발행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0723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 • 전화 1644-7077 • 전송 02-780-0485 | 1987년 1월 28일 제3종 우편물 (나) 인가 / 2024. 3. 10(매월 10일 발행) / ISSN 1227-7568
| 표지글씨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 표지그림 **이현혜** 평생회원 〈리시안셔스와 장미〉

이 달의 메시지

가족 갈등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인 경제난,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혼하기도 하고 혹은 못 하기도 하는 안타까운 현실

새봄에는 가정과 가족 구성원을 위한 정부 당국의 실효성 있는 관심과 정책을 기대하며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해마다 두 번의 시작을 경험합니다. 달력의 해가 바뀌는 때와 3월입니다. 3월이면 지난한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으며 학교마다 입학식이 이어지고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이때 사회생활에 진입하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는 느낌입니다. 상담소에서도 지난해의 통계를 마무리하고 정리, 발표하는 것이 3월이어서 비로소 진정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상담소의 상담통계는 지금 우리 가정이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자료로, 우리 사회 가정의 변화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한 해 사이에 가정 내에서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는 일은 드물지만 가족법 개정에 따른 변화의 양상 그리고 5년, 10년 단위로 나타나는 가족 구성원 간 갈등과 마찰 요인의 점진적인 변화와 그 변화의 추이를 통해 가정의 변화와 가족 구성원들의 생각 즉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상담소의 2003년 상담통계에는 아직 미성년 자녀가 있는 40대 부부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당시의 현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10년 후인 2013년의 상담통계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반영

하듯 부모 부양문제에 대한 상담이 눈에 띄게 통계에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새롭게 시행된 성년후견, 미성년후견, 미성년 입양허가에 대한 상담도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 갈무리된 지난 2023년 상담통계를 보면 2000년대까지 대체로 기타인 6호 사유가 남성과 여성의 공통된 첫 번째 이혼 상담 사유였던데 비해, 최근 여성의 경우 남편의 부당한 대우 즉 폭력을 이혼 사유로 제시하는 경우가 다시 나타나고 있어 여전한 가정폭력의 문제와 함께 폭력에 민감해진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상황이 가정 내 가족 간 갈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타까운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을 당해도 자녀 문제, 주거와 생활비 문제로 보복이나 경제적 압박 혹은 이혼 강요가 두려워 신고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견디며 가정폭력을 방치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 심각한 갈등과 마찰로 가정을 유지하기 힘들다 해도 자녀의 학업이나 혼인이 끝날 때까지 이혼하지 않고 사는 '무늬만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절실하여 이혼을 하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혼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는데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당하면서도 경제적 문제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는 것도, 가족으로 살고 싶은데 외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하므로 이혼을 택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이라는 맹자의 말처럼 정부와 사회가 어려움을 극복하며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마음을 다스리기 힘들다'는 것은 맹자 시대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상담소는 몇 해 전부터 노년이혼의 증가가 상담소 상담통계의 주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해 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80대 중후반의 이혼 상담을 원하는 내담자를 상담실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90세가 넘는 고령의 내담자도 있습니다. 이들 노년이혼 상담의 가파른 증가를 상담소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2003년의 6.2%에서 2023년에는 23.1%로 증가했고 남성 이혼 상담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60대 이상의 경우 2003년에는 10.7%였으나 2023년에는 51.5%로 20년 전과 비교해 다섯 배의 증가 그리고 2023년 한해 전체 남성 상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한동안은 높은 이혼율이 화제가 되던 때가 있었으나 어느 시점부터는 혼인율 자체가 떨어지면서 그와 연동돼 이혼율도 감소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년이혼이 이혼율을 견인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노년기에도 배우자의 부정, 폭력, 별거, 경제갈등과 그로 인한 배우자 간 갈등과 마찰, 불안, 소외,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의 부부갈등, 가족 갈등은 한 두 해 된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축적, 집약되어 온 것이기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더욱 어려우며 이혼에 이른다고 하여 모두 해결되고 당사자들이 새로운 삶의 국면에서 행복해지는 것만도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가부장적 가치관으로 평생을 지내온 남성들의 경우는 본인이 이혼을 원해 이혼한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소에서는 일찍부터 이러한 가정 문제를 예견하고 법 개정, 제정 및 보완과 정책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면서 한편으로는 개인들의 의식 개혁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더불어 자체적으로 상담소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노력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가정문제 전문 상담 기관으로써 상담소의 문제 제기와 현실에 대한 자각은 언제나 한발 앞서는 것이었으나 민간단체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충분히 실행에 옮길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가 가족정책에 있어 현장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나서줄 것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새봄에는 우리 사회와 가정마다 따뜻한 소식이 많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통계

이혼 초상담 2,223건, 재상담 2,790건으로 재상담 증가,
자녀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등 고려 사항 많고 결정 쉽지 않아 여러 차례 재방문
젊었을 때 상담받고 수십 년 지나 재방문하기도
여성은 40대(32.0%), 남성은 60대 이상(51.5%)이 가장 많아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총 55,684건을 상담하였다.

상담처리별로 분석하면, 법률상담 46,047건, 화해조정 8,002건, 소장 등 서류작성 529건, 소송구조 1,106건이었다. 상담방법별로 분석하면, 면접상담 21,220건, 전화상담 33,116건, 인터넷상담 1,272건, 서신상담 7건, 지상상담 12건, 순회상담 57건이었다.

면접상담은 총 21,220건이었다. 사건내용은 크게 가사 · 민사 · 형사로 분류하는데, 가사사건이 20,133건으로 면접상담의 94.9%를 차지하였으며, 민사사건이 910건(4.3%), 형사사건이 177건(0.8%)이었다.

면접상담 중에서는 이혼상담이 23.6%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2022년 21.5%→2023년 23.6%). 한편, 이혼에 대한 협의를 끝내거나 이혼을 한 후 자녀 관련 문제나 위자료 · 재산문제 등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오는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 재산분할 등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는데 이러한 항목들 역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친권 · 양육권 1.6%→1.8%, 양육비 4.0%→5.6%, 위자료 · 재산분할 1.6%→1.7%).

아래에서는 면접상담 중 비중이 높은 이혼상담 등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혼상담 분석

총 5,013건,
여성내담자 4,011명(80.0%),
남성내담자 1,002명(20.0%)

주요 내용

- 이혼 초상담 2,223건, 재상담 2,790건,
  자녀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등 고려 사항 많고 결정 쉽지 않아 여러 차례 재방문
  젊었을 때 상담받고 수십 년 지나 재방문하기도

- 여성은 40대(32.0%), 남성은 60대 이상(51.5%)이 가장 많아

● **여성 이혼상담 사유**

1위 남편의 부당대우(폭력)

2위 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폭언 순)

3위 남편의 가출

● **남성 이혼상담 사유**

1위 기타사유

(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배우자의 이혼강요 순)

2위 아내의 가출

3위 아내의 부당대우(폭력)

● 이혼상담 여성 56.5%, 남성 7.7%

배우자의 폭력 등 부당대우 호소

● 이혼상담 남성 47.4%, 여성 15.4%

배우자 가출, 장기별거 호소

● 폭력 당해도 보복, 경제적 압박, 이혼강요 두려워 신고 등 적극적 대처 못해

남남처럼 지내도 자녀문제, 주거문제, 생활비문제 등으로 관계 방치

주거, 양육비, 수급비 등 정부 지원받고자 이혼 원하기도

결국,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혼하기도, 이혼 못하기도

● 노년층 이혼상담 비율 가파르게 증가

60대 이상 여성

(2003년 6.2%→2013년 12.4%→2023년 23.1%)

60대 이상 남성

(2003년 10.7%→2013년 20.1%→2023년 51.5%)

● 이혼상담 최고령자 남성 87세, 여성 86세

● 노년기에도 배우자의 폭력, 별거, 경제갈등 여전,

그로 인한 불안, 소외, 빈곤 문제 심각

● **노년 여성**

남편 폭행, 외도, 노년에도 안 변해

평생동안 남편, 자녀 뒷바라지했어도 돈 못 벌었다 무시 당해

남은 것은 빈곤과 아픈 몸, 이제라도 내 몫 받아 내 인생 살고 싶어

● **노년 남성**

아내 타박, 자녀들 무관심으로 가정 안에서도 소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코로나 끝나도 갈 곳 없어

그나마 있는 재산, 이혼하고 나누면 방도 못 얻어

상담소에서는 총 5,013건의 이혼상담을 진행하였다. 이 중 여성내담자는 4,011명이었고, 남성내담자는 1,002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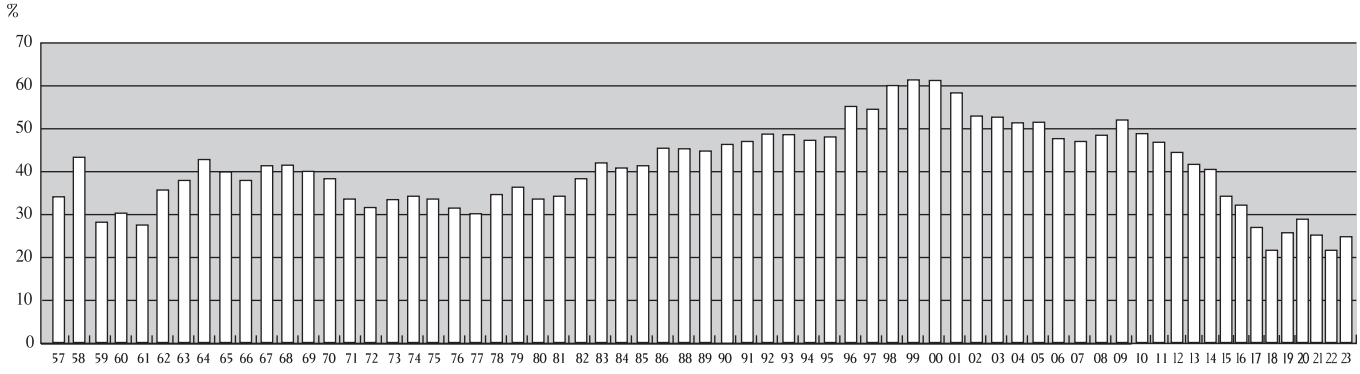
● 78세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결혼 초기부터 남편에게 맞았다. 아이들이 있어 헤어지지 못하다가 아이들이 결혼하면서 남편을 피해 서울로 왔다. 처음에는 쉼터에서 지내다 딸이 손주를 봐달라 하여 딸 집에 있었고 현재는 딸이 얻어준 원룸에서 지내고 있다. 정부 지원받고 싶은데 남편 명의 집이 있어 여의치 않다. 그 집도 내가 알뜰히 모으고 생활해 장만한 집이다. 현재 정신과 다니며 우울증 약 먹고 있다. 몇 년 전 법원에 협의이혼을 접수했는데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 못했다. 이제라도 이혼하고 내 몫의 재산 받아 마음 편히 살고 싶다.

● 73세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평생 받은 월급을 아내에게 꼬박꼬박 가져다 주었고, 퇴직 후에도 취업하여 오늘날까지 성실하게 가장 역할을 해왔다. 그러다 아내 모르게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했는데 잘못해서 손해를 좀 봤다. 얼마 전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도 받아 살길이 막막해졌다. 그래서 아내 명의로 해 준 집을 처분해 빚을 변제하고 집을 좀 줄여가자고 했더니 펄펄 뛰며 이혼을 요구한다. 아내는 내 부모에게도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자식들도 전부 자기 엄마 편만 들어 서운하고 분통이 터진다. 이혼하고 싶다.

연도별 이혼상담 비율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
나이차는 남편 1-2년 연상, 혼인기간은 1-11년,
여성 직업은 전업주부, 남성 직업은 무직,
남녀 모두 초혼, 남녀 모두 고졸의
이혼상담이 가장 많아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의
이혼상담 비율이 가장 높아

여성은 40대(1,283명, 32.0%), 60대 이상(927명, 23.1%), 50대(826명, 20.6%), 30대(751명, 18.7%), 20대(222명, 5.5%) 순으로, 남성은 60대 이상(516명, 51.5%), 40대(194명, 19.4%), 50대(190명, 19.0%), 30대(78명, 7.8%), 20대(23명, 2.3%) 순으로 나타나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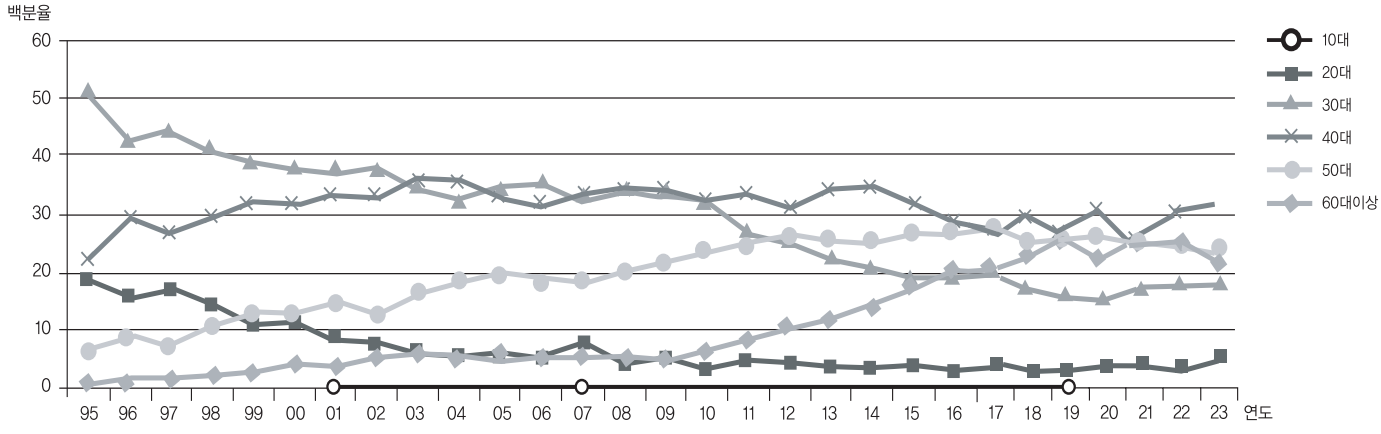
여성의 경우 20년 전인 2003년에는 40대(20대 6.9%, 30대 34.5%, 40대 35.5%, 50대 16.8%, 60대 이상 6.2%)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대, 50대, 20대, 60대 이상의 순이었다. 10년 전인 2013년에도 40대(20대 4.5%, 30대 23.0%, 40대 34.1%, 50대 26.0%, 60대 이상 12.4%)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그 다음은 50대, 30대, 60대 이상, 20대 순으로 나타나 2003년과 비교해 볼 때 50대, 60대 이상의 순위가 상승하였다. 그런데 2023년에는 40대, 60대 이상, 50대, 30대, 20대(20대 5.5%, 30대 18.7%, 40대 32.0%, 50대 20.6%, 60대 이상 23.1%) 순으로 나타나 60대 이상의 순위가 더 상승하였다. 2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30대는 34.5%에서 18.7%로 크게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은 6.2%에서 23.1%로 크게 증가하였다.

남성의 경우 20년 전인 2003년에는 40대(20대 4.3%, 30대 34.1%, 40대 35.2%, 50대 15.5%, 60대 이상 10.7%)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대, 50대, 60대 이상, 20대 순이었다. 10년 전인 2013년에는 40대(20대 1.1%, 30대 17.6%, 40대 35.4%, 50대 25.8%, 60대 이상 20.1%)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50대, 60대 이상, 30대, 20대 순으로 나타나 2003년과 비교해 볼 때 50대와 60대 이상의 순위가 상승하였다. 그런데 2023년에는 60대 이상, 40대, 50대, 30대, 20대(20대 2.3%, 30대 7.8%, 40대 19.4%, 50대 19.0%, 60대 이상 51.5%) 순으로 나타나 60대 이상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었고 2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10.7%에서 51.5%로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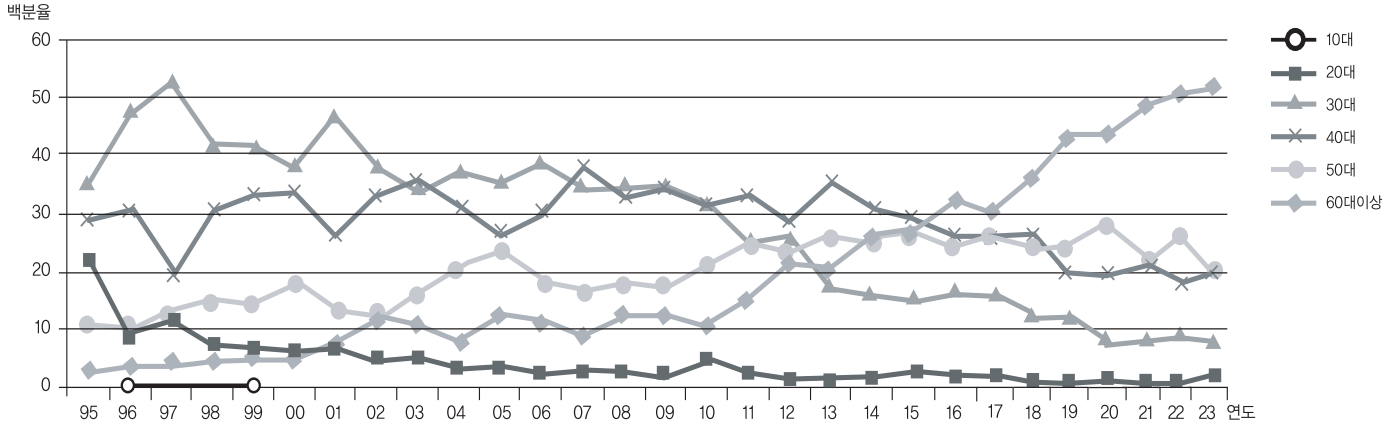
여성 40대 이혼상담 사례
(내담자 여성 40대 / 상대자 남성 4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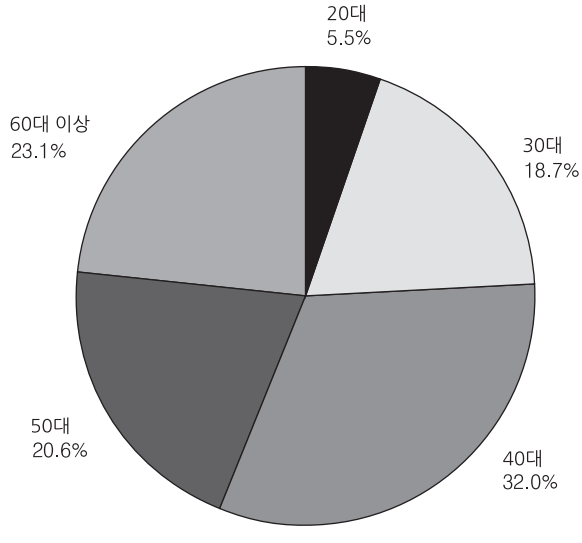
작년에 남편에게 심하게 맞았다.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고소하였고, 남편이 상담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에도 나와 아이들을 또 폭행하였다. 내가 아이들을 목욕시키는데 남편이 보일러를 꺼버리기도 했다. 남편이 수시로 집을 나가라, 이혼하자고 하여 현재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있는 상태이다. 맞벌이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남편이 투자를 이유로 2억원 가량을 날렸다. 나도 이혼을 원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

이혼 – 여성 연도별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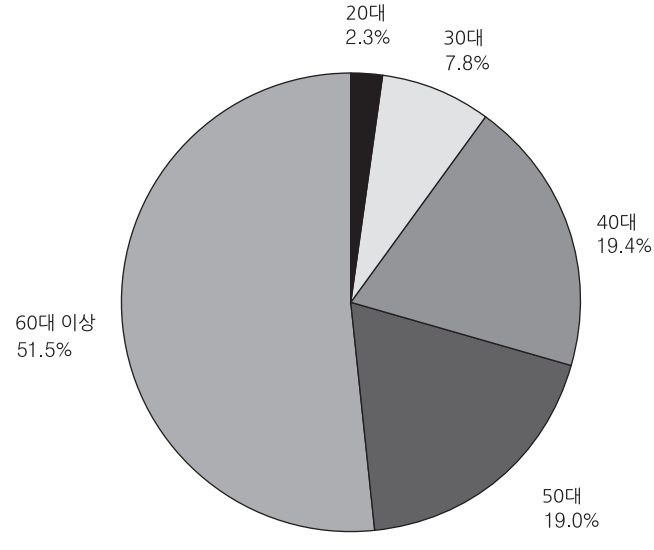


이혼 – 남성 연도별 연령별





여성의 연령별 이혼상담비율



남성의 연령별 이혼상담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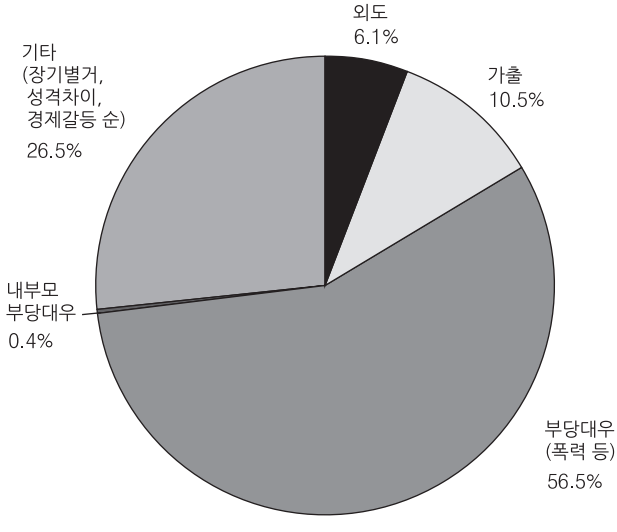
남성 60대 이상 이혼상담 사례
(내담자 남성 60대 / 상대자 여성 60대)

얼마 전 아내가 망치를 들고 나를 죽이겠다며 협박하였다. 경찰에 신고하였고, 내가 나가는 방식으로 분리조치되었다.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내 물건들을 커터칼로 난도질해 다시 경찰에 신고했고 이번에는 아내를 밖으로 내보냈다. 15년 전부터 각방을 썼고 아내의 의부증과 폭언, 폭력 때문에 늘 불안에 떨었다. 심지어 행인이 길을 물어 답해줬을 때에도 나와 행인에게 아내가 행패를 부려 행인이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 더 이상은 공포심에 잠을 이룰 수 없어 이혼을 원한다.

이혼상담 사유 분석

여성의 이혼상담 사유(총 4,011건)

1위 '남편의 부당대우(폭력)'
(민법 제840조 3호)(56.5%, 2,267건)
2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폭언, 빚, 생활무능력 등이 우선 순위임)'(6호)(26.5%, 1,063건)
3위 '남편의 가출'(2호)(10.5%, 421건)



여성의 이혼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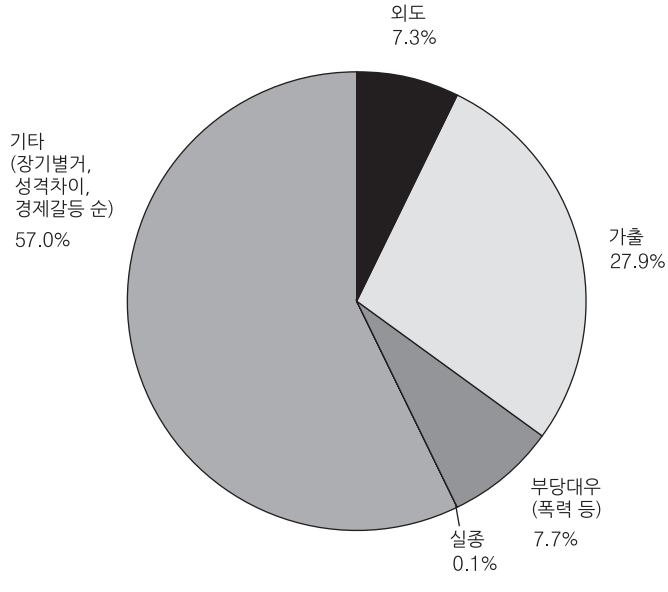
남성의 이혼상담 사유(총 1,002건)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배우자의 이혼강요, 애정상실, 정신병 등이 우선 순위임)'(6호)
(57.0%, 571건)
2위 '아내의 가출'(2호)(27.9%, 280건)
3위 '아내의 부당대우'(3호)(7.7%, 77건)

여성의 56.5%가 남편 폭력 호소해
남성의 47.4%가 아내의 가출, 장기별거 호소해

여성의 이혼상담 사유를 살펴보면, 민법 제840조 3호 '배우자의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꼽은 경우가 56.5%(2,267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26.5%, 1,063건), 2호 '남편의 가출'(10.5%, 421건) 순이었다.

이혼상담을 한 여성의 과반수 이상인 56.5%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하였다. 특히 남편의 폭력을 이혼 사유로 주장한 여성들은 2020년 48.3%, 2021년 48.8% 2022년 53.9%, 2023년 56.5%로 계속 증가해 가정 내 남편의 아내 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남성의 이혼사유

그런데 상담을 통해 보면,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고 처벌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남편으로부터의 보복, 경제적 압박, 이혼강요 등이 두려워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남성의 경우에는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꼽은 경우가 57.0%(57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호 '아내의 가출'(27.9%, 280건), 3호 '아내의 부당한 대우'(7.7%, 77건) 순이었다. 한편, 1순위인 기타 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혼상담을 한 남성의 47.4%(전체 1,002건 중 아내 가출 280건, 장기별거 195건)가 아내의 일방적인 가출이나 장기별거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된 지 오래되었다고 호소해왔다. 특히 아내의 가출을 이혼 사유로 주장한 남성의 비율은 2020년 23.0%, 2021년 26.6%, 2022년 26.7%, 2023년 27.9%로 계속 증가해 이로 인한 가정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의 가출이나 별거 전 성격차이, 폭력, 경제갈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선행된 경우가 많았다. 아내의 가출과 장기별거 문제는 특히 노년 남성층에서 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은 아내와 이미 남남처럼 지낸 지 오래되었어도 이혼하고 그나마 있는 재산을 나누게 될 경우 방 얻을 돈도 부족해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여성 60대 이혼상담 사례(폭력)
(내담자 여성 60대 / 상대자 남성 60대)

남편은 평생 자기네 식구들만 챙기며 나를 무시하고 종 부리듯 살았다. 나는 조카들 셋까지 돌보며 살았는데 이런 나를 고마워하기는커녕 걸핏하면 화를 내고 목을 조르거나 칼을 들이밀곤 하였다. 내가 혼자 장사하고 살림하며 어렵게 살아도 남편은 도박에 빠져 빚만 졌다. 견딜 수 없어 이혼하자고 했더니 그때도 나를 쓰러뜨리고 올라타 목을 조르고 죽이려고 하였는데 딸이 말려 겨우 벗어났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혼하고 싶다.

남성 40대 이혼상담 사례(가출, 별거)
(내담자 남성 40대 / 상대자 여성 30대)

아내가 가출하여 별거하게 된 지 꽤 오래 지났다. 나는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아내가 얼마 전 나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신청을 해왔다. 나에게 의처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억지 주장이다. 오히려 아내가 가출 전부터 외도를 하고 있었고 나는 외도에 대한 증거도 확보해 둔 상태이다. 또한 친정에 계속해서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냥 모른 척 눈감아 주고 있었을 뿐이다.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까지 하고 싶다.

남녀 모두 6호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으로 상담 많아

6호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6호사유(총 1,063건) 중 '장기별거'로 인한 상담이 18.6%(19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13.6%(145건), '경제갈등' 9.3%(99건), '폭언' 7.2%(77건), '빚' 7.1%(76건), '생활무능력' 4.5%(48건), '불신' 3.3%(35건), '결혼조건속임' 3.0%(32건), '도박' 2.9%(31건), '배우자의 이혼강요' 2.8%(30건), '전과/복역' 2.6%(28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도 6호사유(총 571건) 중 '장기별거'로 인한 상담이 34.2%(19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14.4%(82건), '경제갈등' 14.0%(80건), '배우자의 이혼강요' 8.2%(47건), '애정상실' 2.3%(13건), '폭언' 1.9%(11건), '정신병' 1.8%(10건), '잦은 가출' 1.4%(8건), '결혼조건속임' 1.2%(7건), '불신'·'자녀양육갈등' 각 1.1%(각 6건)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6호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여성 18.6%, 남성 34.2%), '성격차이'(여성 13.6%, 남성 14.4%), '경제갈등'(여성 9.3%, 남성 14.0%)을 이유로 한 상담이 많았다.

장기별거 비율,
여성 2003년 5.5%, 2013년 10.1%, 2023년 18.6%
남성 2003년 6.7%, 2013년 13.5%,
2023년 34.2%로 크게 증가

기타사유인 6호사유 중 '장기별거'의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은 2003년 5.5%, 2013년 10.1%, 2023년 18.6%로, 남성은 2003년 6.7%, 2013년 13.5%, 2023년 34.2%로 20년 간 남녀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이 경우 이미 오랜 별거로 부부 관계가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이혼을 원해도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어 협의이혼 진행이 불가하고 재판이혼도 송달에 문제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한편,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어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임대주택, 한부모가정 지정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법적 혼인 관계 정리를 위해 상담소를 방문한 이들도 있었다.

장기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60대 여성)

20여년 전 사업이 망하면서 남편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 먹고 살 길이 없어 당시 결혼을 일찍한 아들 집에 가서 손주를 키웠다. 그런데 막상 손주들이 크고 나니 아들이 따로 살자고 하면서 월세방을 얻어 주어 짐을 싸 나왔다. 방은 얻었으나 생활이 막막해 수급자로 지정되려고 하니 법률상 남편이 있어 어렵다고 한다. 이혼하려고 해도 남편을 찾을 수가 없다. 남편은 이제껏 한 번도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았다. 이혼하는 방법은?

장기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60대 남성)

혼인한 지 30년이 넘었다. 살면서 성격이 맞지 않아 많이 다퉜다. 경제갈등도 있어 사는 게 팍팍했는데 15년 전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후 들어오지 않았다. 당시 아내가 집에 있던 돈과 시어머니 돈까지 모두 들고 나가 내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현재 나는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다. 임대주택이라도 받으려면 이혼을 해야 한다는데 만나면 또 돈을 요구할 것 같아 협의이혼은 어렵다.

남녀 모두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를
이혼사유로 주장하는 이들도 많아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성격차이'를 이혼사유로 제시한 비율도 높았다(6호사유 중 여성 13.6%, 남성 14.4%). 상담을 통해 보면, 내담자들은 결혼 전 상대의 다른 성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알았어도 자신에게 없는 성향이 호감으로 느껴져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결혼생활에서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차이를 경험했을 때에는 극복할 수 없어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50대 여성)

남편의 집착과 집요함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남편은 꼬투리 하나만 잡아도 나를 끝도 없이 괴롭힌다. 남편은 이제껏 내게 한마디 상의 없이 마음대로 돈을 쓰고 다녔으면서도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쓰면 그 건 하나로 나를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질책한다. 나는 늘 내 동선을 남편에게 일일이 말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어김없이 질책 당하였다. 결혼 전에는 남편의 꼼꼼한 성격이 좋았는데 지금은 내가 살 수가 없어 이혼하고 싶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30대 남성)

아내와 4년 연애하였고 결혼한 지 3년 되었다. 그런데 한 달 전쯤 아내가 내게 이혼을 요구해왔다. 아내와 성격이 달라

많이 힘들었다. 병원이나 보험회사 등에서 한 번에 일처리를 못해주면 나는 화가 나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내 태도를 지적하며 둥글지 못해 자신이 민망하다는 반응을 자주 보였다. 나는 가만히 있는 아내가 더 답답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내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같이 살 수 없다고 하였다. 나도 아내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경제갈등, 생활무능력, 빚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상담 비율 높아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경제갈등'(6호사유 중 여성 9.3%, 남성 14.0%)을 이유로 한 이혼 상담 비율도 높았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의 '생활무능력'(4.5%)과 '빚'(7.1%)을 이유로 이혼상담을 해 온 이들도 많아 경제적 문제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갈등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젊은층에서는 맞벌이에 따른 가사 및 생활비 분담, 자녀양육 수준, 양가 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 주식 및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견 등이 주요인이었다. 노년층에서는 남녀의 주장이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은퇴 후에도 계속되는 아내의 소득 활동 강요, 여성의 경우에는 생활비 지급을 이유로 한 남편의 계속된 가사 노동 강요 등이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40대 여성)

남편과 결혼한 지 8년되었고 결혼 직후부터 요식업을 하였다. 나는 그 사이 아이를 두 명 낳았고, 틈이 날 때마다 가게를 같이 운영하며 일을 했다. 그런데 남편은 수익만 나면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고, 내가 출산 등으로 일을 못하는 상황이면 남편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도 있었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카드를 정지시키곤 해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이혼하고자 한다.

경제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60대 남성)

평생 일을 해 식구들을 부양했다. 그러나 늘 돈이 부족해 다툼이 많았다. 노력했지만 돈을 모으지 못했고 월세를 살았다. 이에 대해 아내와 자녀들의 불만이 많았다. 결국 갈등이 심해져 2년 전 나만 집을 나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수급자라도 신청하려고 구청에 방문했더니 이혼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상대에게 연락했으나 상대는 자녀들을 이유로 이혼에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다.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대화단절' 주장하는 이들 많아져

한 집에 살아도 부부 간 대화가 단절되어 정서적으로 이미 이혼한 상태와 다름없다고 호소한 경우도 남녀 모두 2022년에 비해 증가하였다(여성 0.3%→0.7%, 남성 0.8%→0.9%). 상담을 통해 보면, 이들의 경우에도 혼인 초에는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 보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속 자신의 입장만 주장해 결국 대화를 진행할 의지조차 없어졌고, 경제적 문제나 양육 문제 등으로 주거는 분리하지 못한 채 한 집에서 남처럼 지내게 되었다고 호소해왔다.

대화단절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40대 여성)

혼인 20년차이다. 그동안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자녀 역시 남편과 한 편이 되어 나를 유령취급하며 똑같이 행동한다. 너무 힘이 들어 내가 자살시도를 했는데 남편은 내게 연기하지 말라고 하였다. 남편은 직장에 다니는데 집에 와서 9시만 되면 자기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근 후 나오지 않는다. 대화가 끊긴 지는 오래되었다. 오랜 기간 정신과에 다녔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이혼하자고 했으나 남편이 응하지 않는다.

대화단절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40대 남성)

결혼한 지 12년 되었고, 초등학생 딸이 한 명 있다. 맞벌이 부부인데 어느 날부터 서로 관계가 어긋나 한 집에서도 남남처럼 지내고 있다. 부부관계는 냉담하고 각 방을 쓴 지도 오래되었다. 최소한의 대화도 카톡으로만 한다. 아내에게 이혼을 원하면 재판을 하라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다. 나는 이혼을 원하나 아이 때문에 걱정이다.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종교갈등' 증가

기타사유인 6호사유 중 '종교갈등'의 비율이 남녀 모두 2022년에 비해 증가하였다(여성 0.3%→0.7%, 남성 0.2%→0.4%). 상담을 통해 보면, 단순히 종교가 다르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들은 배우자가 가정생활 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종교에 매달리면서 과도하게 헌금을 하거나 종교활동을 이유로 잦은 모임과 외박을 일삼는 경우 등을 문제 삼았고, 나아가 그러한 종교활동을 자신이나 자녀들에게까지 강요해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종교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30대 여성)

남편이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결혼했다. 혼인신고 후에도 남편은 교단 활동을 이유로 지방에서 생활하였다. 그런데 남편은 종교활동을 이유로 생활비를 준 적이 없다. 고민 끝에 출산하였으나 남편은 양육에 관해서도 관심이 전혀 없었다. 시댁에 아이를 잠깐 맡겼다 데려왔는데 남편은 갑자기 아이를 데려간 것에 대해 매우 분개하였다. 짐작컨대 교단에서 지시를 받은 것 같았다. 남편이 그 종교에 빠져 있는 한 평범한 가정생활을 할 가망은 전혀 없어 이혼하고자 한다.

6호사유 중 비율 증가 항목(2022년 → 2023년)

여성			남성		
사유	2022년(%)	2023년(%)	사유	2022(%)	2023년(%)
불신	1.8	3.3	경제갈등	5.7	14.0
결혼조건속임	0.6	3.0	**불성실한 생활**	**0.2**	**0.9**
생활무능력	4.1	4.5	**전과/복역**	**–**	**0.5**
불성실한 생활	**0.9**	**1.0**	**종교갈등**	**0.2**	**0.4**
사치/낭비/허영	0.0	0.1	성적갈등	0.4	0.5
빚	4.4	7.1	정신병	1.4	1.8
도박	2.8	2.9	주벽	–	0.2
전과/복역	**1.0**	**2.9**	**폭언**	**1.4**	**1.9**
종교갈등	**0.3**	**0.7**	잦은 가출	–	1.4
무시/모욕	1.2	1.4	애정상실	0.2	2.3
폭언	**6.1**	**7.2**	**대화단절**	**0.8**	**0.9**
자녀학대	1.1	1.2	처가와의 갈등	0.2	0.4
기물파손	0.3	1.5	고부갈등	–	0.2
대화단절	**0.3**	**0.7**	중독증	0.2	0.7
시가와의 갈등	1.0	1.7	게임중독	–	0.2
전혼자녀와의 갈등	–	0.2	**자녀양육갈등**	**0.8**	**1.1**
자녀양육갈등	**0.1**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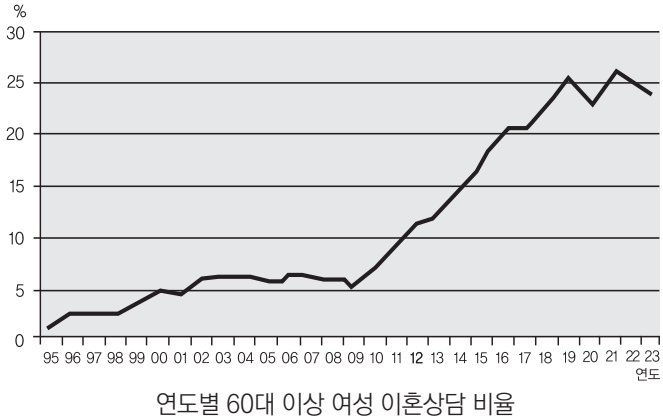
* 진한 글씨는 남녀 모두 증가한 항목임

종교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40대 남성)

아내가 종교집단에 너무 심취해 있어 돈을 지나치게 지출하고 있다. 가사도 거의 돌보지 않아 집안이 엉망이고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난 상황이다. 아이가 두 명인데 아내가 우겨 자녀들도 모두 종교집단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 아이들마저 그 종교에 빠져 문제가 될까 걱정이다. 혼인기간 내내 아내는 나와는 전혀 의논 없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이혼하고자 한다.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자녀양육갈등' 증가

남녀 모두 2022년에 비해 6호사유 중 '자녀양육갈등'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여성 0.1%→0.8%, 남성 0.8%→1.1%). 상담을 통해 보면, 양육해야 하는 자녀의 수는 과거에 비해 줄었으나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양육시간 배분, 양육 비용 분담, 양육 방식 등 다양한 요소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이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남성의 경우에는 과도하게 양육비를 지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에게 양육에 필요한 도움 받는 경우에는 세대 간 양육 방식 차이에서 오는 갈등까지 더해져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연도별 60대 이상 여성 이혼상담 비율

자녀양육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30대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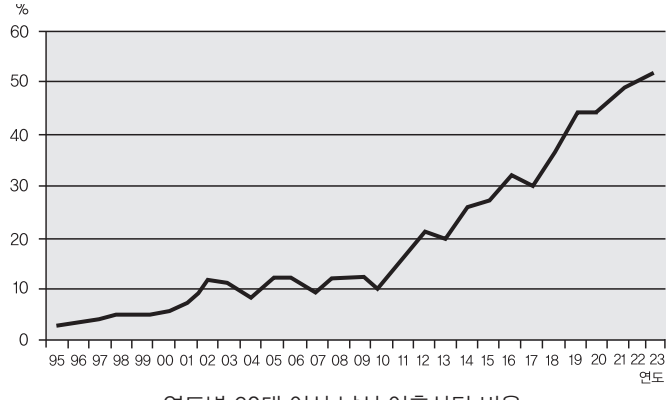
내 수입이 남편보다 많아 현재 남편이 육아 휴직 중이다. 아이들은 5세, 1세이다. 그런데 남편은 휴직만 했을 뿐 실제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나는 퇴근 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려와 식사준비까지 다 하는데 남편에게는 남의 일일 뿐이다. 그런 일들로 인해 불만이 쌓이면서 다툼이 생겼고, 결국 다툰 후 남편이 본가로 가버렸다. 나는 남편을 신뢰할 수 없어 이혼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내가 이혼을 생각하는 줄 모를 것이다.

자녀양육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40대 남성)

아이들이 세 명이다. 첫째는 중학생이고 둘째와 셋째는 초등학생이다. 나는 일반학교에 보내고 싶었는데 아내가 원해 세 아이 모두 대안학교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한 해 들어가는 비용만 수천만 원이다. 비용도 문제이지만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학교이다 보니 종교활동에 대한 강요가 심하다. 또한 거리도 멀어 등하교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가정생활이 말이 아니다. 이에 내가 반대했더니 아내와 아이들이 나를 왕따 시켜 어떠한 대화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년 이혼상담 분석

이혼상담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연령별 분석 첫 해인 1995년에는 60대 이상이 여성



연도별 60대 이상 남성 이혼상담 비율

60대 이상 남녀의 연도별 이혼상담 비율

	여성	남성
1995년	41명(1.2%)	15명(2.8%)
1996년	91명(2.4%)	22명(3.6%)
1997년	96명(2.5%)	25명(4.0%)
1998년	123명(2.7%)	35명(4.6%)
1999년	156명(3.5%)	36명(4.8%)
2000년	237명(4.9%)	41명(5.2%)
2001년	203명(4.5%)	48명(7.7%)
2002년	223명(5.8%)	73명(11.6%)
2003년	212명(6.2%)	60명(10.7%)
2004년	205명(6.2%)	45명(8.4%)
2005년	179명(5.8%)	53명(12.5%)
2006년	211명(6.1%)	60명(11.4%)
2007년	216명(6.0%)	68명(9.0%)
2008년	209명(5.8%)	70명(12.4%)
2009년	213명(5.5%)	79명(12.5%)
2010년	254명(7.0%)	57명(10.5%)
2011년	402명(9.2%)	122명(15.0%)
2012년	521명(11.4%)	175명(21.0%)
2013년	689명(12.4%)	272명(20.1%)
2014년	752명(14.8%)	373명(26.1%)
2015년	996명(18.1%)	524명(27.2%)
2016년	1,038명(20.7%)	626명(31.9%)
2017년	818명(21.1%)	409명(30.4%)
2018년	774명(23.5%)	495명(36.3%)
2019년	870명(25.3%)	586명(43.5%)
2020년	728명(22.3%)	426명(43.5%)
2021년	894명(25.7%)	544명(47.7%)
2022년	768명(24.3%)	428명(50.1%)
2023년	927명(23.1%)	516명(51.5%)

1.2%, 남성 2.8%로 매우 낮았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년 전인 2003년에는 여성 6.2%, 남성 10.7%, 10년 전인 2013년에는 여성 12.4%, 남성 20.1%로 나타났고, 2023년에는 더욱 증가해 여성 23.1%, 남성 51.5%를 기록하였다.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 여성은 10.7%p, 남성은 31.4%p, 20년 전에 비해 여성은 16.9%p, 남성은 40.8%p 상승하였다.

2023년도에 이혼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소를 방문한 60대 이상 여성은 총 927명이었고, 이들 중 60대는 641명, 70대는 266명, 80대 이상은 20명이었다. 또한, 60대 이상 남성은 총 516명이었고, 이들 중 60대는 268명, 70대는 211명, 80대 이상은 37명이었다. 한편, 이혼상담을 받은 내담자 중 최고령자는 남성 87세, 여성 86세였다.

노년 여성,

남편 폭행, 외도, 노년에도 안 변해
평생동안 남편,
자녀 뒷바라지했어도 돈 못 벌었다 무시 당해
남은 것은 빈곤과 아픈 몸,
이제라도 내 몫 받아 내 인생 살고 싶어

노년 남성,

아내 타박, 자녀들 무관심으로 가정 안에서도 소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코로나 끝나도 갈 곳 없어
그나마 있는 재산, 이혼하고 나누면 방도 못 얻어

이들이 내세운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는 60대, 70대, 80대 이상 모두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6호(기타사유), 2호(남편의 가출) 순이었다. 다만, 기타사유인 6호사유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60대는 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70대는 장기별거, 폭언, 빚 순, 80대는 장기별거, 성격차이 · 시가와의 갈등 순).

노년층 여성 모두 남편의 폭력을 이혼사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들의 경우 혼인 초부터 남편의 폭력이 시작되었으나 자녀들이 어리고 경제력이 없어 망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들 중에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남편의 폭력이 줄었다가 자녀들이 분가한 후 다시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호소해 온 경우도 있었다. 내담자들 중에는 자녀가 어릴 때 본 상담소에 방문했으나 용기가 없어 이혼하지 못했는데 노년기가 된 후 자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다

시 방문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경제권을 가진 부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이혼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자녀들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다.

두 번째 사유로는 모두 기타 사유인 6호사유를 꼽았고 그 중에서는 장기별거가 가장 많았다. 세 번째 사유로는 모두 남편의 가출을 문제 삼아 노년층에서도 별거와 가출이 이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담을 통해 보면, 별거와 가출 전에 다양한 선행 원인이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상태로 시간이 지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지 오래되었어도 자녀 양육과 생활고에 시달려 미처 정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낸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이제라도 법적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하루를 살아도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다며 이혼 상담을 해왔다.

남성의 경우 60대는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2호(아내의 가출), 3호(아내의 폭력 등 부당대우) 순, 70대도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경제갈등, 성격차이 순), 2호(아내의 가출), 3호(아내의 폭력 등 부당대우) 순, 80대 이상은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2호(아내의 가출), 1호(아내의 외도) · 3호(아내의 폭력 등 부당대우) 순이었다.

60대, 70대, 80대 이상 남성 모두 6호사유(기타)를 1순위로 제시하였고, 6호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이들 모두 2호사유(아내의 가출)를 2순위로 제시하여 별거와 아내의 가출이 노년 남성층에서도 주된 이혼 사유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경우에도 별거나 아내 가출 전 다양한 갈등들이 선행된 경우가 많았고, 아내가 손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자녀집에 간 후 오랜 기간 돌아오지 않아 사실상 이혼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도 많았다.

한편, 성격차이, 경제갈등, 아내의 부당대우 등을 호소한 노년 남성들도 많았는데 이들은 은퇴 후 경제력을 잃게 되자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외면당해 가정 안에서도 소외되고 고립되어 있다고 호소해왔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외부활동을 하기 어렵고 이혼을 원해도 그나마 있는 재산을 아내와 나눌 경우 방 얻을 여건조차 안 되어 이혼 결정도 쉽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6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남편은 젊어서 잠깐 일한 후 계속 놀았고, 나는 지금까지 일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다. 그런데 남편에게 의처증이 있어 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해왔다. 최근에도 남편이 나를 의심해 내 옷들을 쌓아놓고 잘라버리겠다는 내용의 사진을 보내와 내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아이들도 남편이 싫어 일찍 독립해 나갔고 나와만 연락한다. 주로 내가 벌었어도 현재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혼하고 재산분할 받고 싶다.

	여성 이혼사유 순위별	남성 이혼사유 순위별
60대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2호(아내의 가출)
	2호(남편의 가출)	3호(아내의 폭력 등 부당대우)
70대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6호(기타-장기별거, 경제갈등, 성격차이 순)
	6호(기타-장기별거, 폭언, 빚 순)	2호(아내의 가출)
	2호(남편의 가출)	3호(아내의 폭력 등 부당대우)
80대 이상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시가와의 갈등 순)	2호(아내의 가출)
	2호(남편의 가출)	1호(아내의 외도) • 3호 호(아내의 폭력 등 부당대우)

6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결혼 후 나는 공장에 다니다가 퇴직금을 받아 사업을 하였고, 일이 잘 되어서 아내는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는 등 풍족하게 생활해왔다. 그런데 경기가 하락하면서 사업에 실패하자 10년 전부터 아내가 열흘에 한 번 정도 집에 들어오더니 몇 년 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현재는 딸 집에 가서 아예 오지 않고 있다. 나는 외로움을 많이 타 몇 년 전에는 자살시도를 하기도 했다. 현재 내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혼을 해도 문제, 안해도 문제이다.

7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애들 어릴 때부터 남편에게 맞고 살았다. 그래도 차마 이혼 생각도 못한 채 지금까지 지내왔다. 몇 년 전 남편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내가 간병도 다하고 애를 썼다. 그런데도 남편은 여지껏 모든 경제권을 쥐고 나를 통제하려 한다. 현재는 나와 상의도 없이 재산을 손자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해달라 하였더니 남편이 거절하였다. 지금이라도 내 몫의 재산을 받을 수 있다면 이혼하고 싶다.

7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했는데 코로나까지 겹쳐 빚이 쌓여갔다. 급기야 파산지경에 이르자 아내가 두 자녀와 함께 연락을 끊었다. 이후 우울증으로 내가 자살기도를 하였고, 보건소에서 특별 관리를 받고 있다. 이제라도 몸과 마음을 다잡고 살아보려 하는데 아내가 있어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간 자녀들도 내게 돈이 없다며 나를 무시하고 막말을 퍼부어댔다. 아내와 자녀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이혼하는 방법은?

8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평생 남편에게 맞고 살았다. 81세인데 얼마 전에도 남편에게 또 맞았다. 잠시 나갔다 왔더니 누구를 만나고 왔느냐며 의심했고, 내 뺨을 두 대 때렸다. 경찰에 신고했으나 보복이 두려워 차마 처벌을 원한다고는 하지 못했다. 현재 월세와 기초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남편이 다 받아서 주지 않는다. 나는 날일을 다니며 근근이 입에 풀칠만 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한 후 때리지는 않는데 얼마 전에는 내 손목을 비틀어 잡아 양 팔목에 멍이 들었다. 더 이상은 같이 살기 싫다.

8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나는 평생동안 열심히 일을 해 집도 마련하였다. 그런데 아내 명의로 해서 내 명의로 된 것은 없다. 아내가 몇 년 전 암에 걸렸고, 나는 최선을 다해 혼자서 정성껏 간병도 하였다. 상대방 병세가 나아지는 듯하여 1년 전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경마장에 가서 나도 따라가 몇십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다.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이 화를 내면서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등 위협적인 발언을 수차례 하였다. 그 일로 현재까지 별거 중인데 이혼하고 싶다.

기타 면접상담 분석

유언 및 상속에 대한 상담 많아

전체 면접상담 중 유언·상속에 대한 상담이 7.3%를 차지하였고 건수로는 1,556건이었다. 상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망자가 남긴 적극재산에 대한 분배보다는 소극재산 즉, 빚에 대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물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중에는 부, 모, 자녀, 형제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지내 그들의 채권자로부터 뒤늦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음으로써 비로소 망자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유언 방식에 대한 문의를 해

2023년 면접상담 사건내용별 분석표

사건내용 \ 성별		여성		남성		합계	
		사건수(명)	백분율(%)	사건수(명)	백분율(%)	사건수(명)	백분율(%)
가사 20,133건 (94.9%)	남녀관계	36	0.3	16	0.2	52	0.2
	파 혼	3	0.0	1	0.0	4	0.0
	부부갈등	2,082	17.9	4,551	47.6	6,633	31.3
	이 혼	4,011	34.4	1,002	10.5	5,013	23.6
	사실혼해소	105	0.9	35	0.4	140	0.7
	위자료·재산분할	250	2.1	103	1.1	353	1.7
	친권·양육권	289	2.5	85	0.9	374	1.8
	양육비	896	7.7	296	3.1	1,192	5.6
	면접교섭권	83	0.7	32	0.3	115	0.5
	인 지	127	1.1	20	0.2	147	0.7
	친생부인	25	0.2	15	0.2	40	0.2
	친생자관계존부	231	2.0	122	1.3	353	1.7
	입양	46	0.4	75	0.8	121	0.6
	파양	18	0.2	16	0.2	34	0.2
	친양자	14	0.1	15	0.2	29	0.1
	혼인무효·취소	37	0.3	20	0.2	57	0.3
	이혼무효·취소	8	0.1	5	0.1	13	0.1
	부양관계	34	0.3	26	0.3	60	0.3
	유언·상속	899	7.7	657	6.9	1,556	7.3
	가족관계등록부	257	2.2	229	2.4	486	2.3
	성변경	171	1.5	43	0.4	214	1.0
	개명	86	0.7	41	0.4	127	0.6
	미성년후견	237	2.0	102	1.1	339	1.6
	성년후견	218	1.9	152	1.6	370	1.7
	가사절차	268	2.3	197	2.1	465	2.2
	기타	676	5.8	1,170	12.2	1,846	8.7
민사 910건 (4.3%)	임대차	24	0.2	8	0.1	32	0.2
	부동산	16	0.1	6	0.1	22	0.1
	채권·채무	54	0.5	36	0.4	90	0.4
	파산	231	2.0	370	3.9	601	2.8
	개인회생	13	0.1	30	0.3	43	0.2
	민사절차	18	0.2	4	0.0	22	0.1
	민사기타	66	0.6	34	0.4	100	0.5
형사 177건 (0.8%)	혼인빙자간음	30	0.3	6	0.1	36	0.2
	간 통	–	–	–	–	–	–
	성폭행	4	0.0	4	0.0	8	0.0
	성매매	–	–	–	–	–	–
	형사절차	19	0.2	8	0.1	27	0.1
	형사기타	79	0.7	27	0.3	106	0.5
합 계		11,661	100	9,559	100	21,220	100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에 대해 다툼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미리 상속분을 정리해 두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 많아

전체 면접상담 중 개인파산 및 면책에 대한 상담이 2.8%를 차지하였고 건수로는 601건이었다. 또한,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도 0.2%를 차지하였고, 건수로는 43건이었다. 상담소에서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시설 등과 연계해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막고자 이혼 등 가사관련 상담을 위해 방문한 내담자들 중에도 과도한 빚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파산 및 개인회생 상담을 함께 진행해 이들의 재기를 도왔다.

친권 ·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상담 건수 늘어

2022년에 비해 미성년 자녀의 친권 · 양육권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1.6%→1.8%).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 재산상 권리를 일컫고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한다. 부부가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만 문의해오는 경우는 '친권 · 양육권'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에 대한 문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이혼 시 자신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해왔고 이혼 당시 이미 정해진 친권, 양육권을 변화된 상황이나 자녀의사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해 오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2022년에 비해 양육비에 대한 상담도 증가하였다(4.0%→5.6%). 양육비 관련 상담을 한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이혼 후 전배우자로부터 자녀의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된다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턱없이 부족해 생기는 고충을 호소해왔다. 그동안 상대방이 고의로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양육비 현실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나 이들은 여전히 양육비를 제 때 받지 못하거나 아예 못 받고 있어 자녀 복리 측면에서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마련해 달라고 호소해왔다.

사실혼해소 상담 건수 늘어

전년도에 비해 면접상담 중 사실혼해소에 관한 상담도 증가하였다(0.4%→0.7%).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으로 부부공동의 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사실혼관계로 살던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사실혼해소라 하는데 최근에는 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젊은 부부가 확신이 없고 구속받기 싫어 혼인신고를 미루다 헤어질 것을 결심한 경우였고, 또 하나는 재혼한 노년 부부가 복잡한 재산관계와 자녀들 반대로 혼인신고를 미루다 헤어질 것을 결심한 경우였다. 이들은 사실혼해소 절차와 사실혼을 해소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등을 주로 문의해왔다.

김진영 상담위원

2023년도 다문화가정 영어법률상담 통계

2023년에 본소에서 실시한 다문화가정 영어법률상담은 총 24건이었다.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상담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면접상담 2건, 전화상담 1건 순이었다. 인터넷 상담 후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면접상담이나 전화상담으로 진행되었는데 인터넷 상담으로 원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상담 내용은 이혼 - 양육비 · 가사 기타 - 남녀관계 순으로 많았다. 2023년에 진행된 영어법률상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 다문화가정 영어법률상담

	상담일	신청인		상대방		사건분류
		성별	국적	성별	국적	
1	1. 25.	여	한국	–	–	민사/기타
2	1. 27.	남	미상	여	한국	가사/남녀관계
3	1. 30.	남	미상	여	한국	가사/남녀관계
4	1. 31.	남	미상	여	한국	가사/남녀관계
5	1. 31.	남	미상	여	한국	가사/남녀관계
6	2. 13.	여	프랑스	남	한국	가사/기타
7	2. 13.	여	태국	남	한국	가사/기타
8	2. 15.	여	프랑스	남	한국	가사/이혼/3호, 내담자1호
9	2. 17.	(법인)	말레이시아	–	–	가사/기타
10	2. 17.	여	태국	남	한국	가사/이혼/2호
11	2. 20.	남	캐나다	여	한국	가사/이혼/3호
12	2. 22.	남	캐나다	여	한국	가사/이혼/3호
13	2. 27.	여	프랑스	남	한국	가사/이혼/3호, 내담자1호
14	2. 27.	남	캐나다	여	한국	가사/이혼/3호
15	3. 2.	남	캐나다	여	한국	가사/기타
16	4. 24.	여	미상	남	미상	가사/양육비
17	4. 24.	여	미상	남	미상	가사/양육비
18	5. 31.	남	프랑스	–	–	가사/상속
19	6. 21.	여	미상	남	한국	가사/양육비
20	7. 14.	여	미상	남	한국	가사/양육비
21	7. 17.	여	미상	남	한국	가사/양육비
22	7. 31.	여	미상	남	한국	가사/면접교섭
23	10. 5.	여	인도	–	–	가사/기타
24	10. 27.	여	멕시코	남	한국	가사/이혼/3호

<사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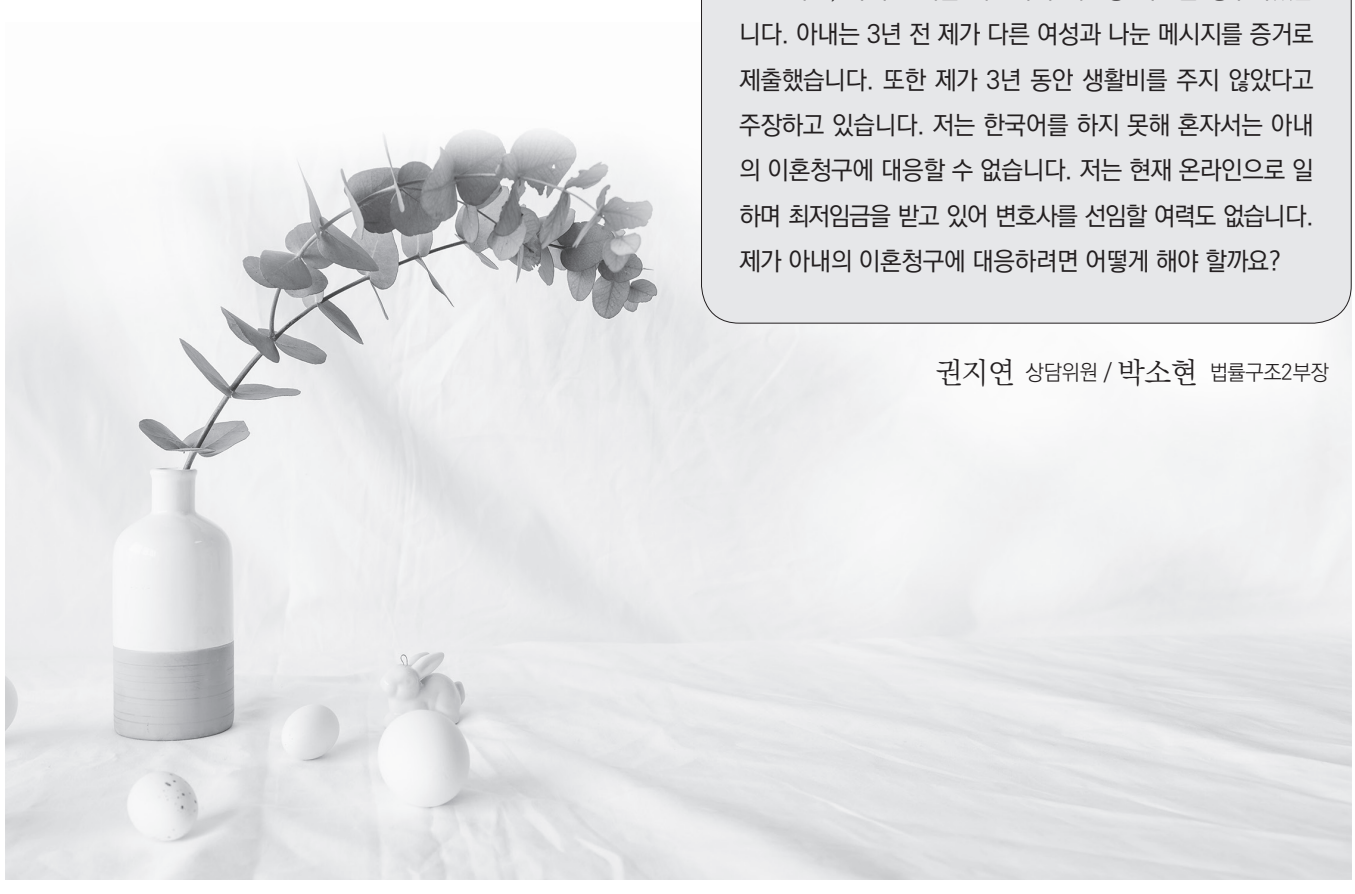
2018년 한국 국적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오랜 기간 남편의 정서적 학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게으르고, 지적으로 부족하며, 뚱뚱하다고 했습니다.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저를 본국으로 보내겠다는 협박을 자주 하였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사랑과 관심이 필요했습니다. 힘든 시기에 다른 남성을 만나게 되었고, 남편이 이를 알게 되어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사기를 당하였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을 때 경찰은 남편에게 다른 남성들과 교환한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이 격분하였고, 제 핸드폰을 빼앗아 가족 및 친구와의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위해 고향과 가족, 친구들을 모두 두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남편과 함께 영상을 제작하여 수익을 창출하며 살았으나 남편은 단 한 번도 그 수익금을 제게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전 재산을 이미 남편에게 모두 주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사례2>

저는 000인이며 아내는 한국인입니다. 저와 아내 사이에는 미성년인 아들이 있으며, 아들의 국적은 저와 같습니다. 저와 아내는 000에서 혼인하여 000에서 살았습니다. 아내는 10번 이상 저를 떠나려고 했고, 낙태를 하겠다, 칼을 들고 찌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아내는 제 앞에서 자살 시도를 했고, 집기를 부수기도 하였지만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와 다른 여성이 농담을 나눈 메시지를 발견한 후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3년 동안 연락을 단절하였습니다. 아내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갈 무렵 제 동의 없이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내는 000법원에서 아동 탈취 판결을 받았으나 저는 아들과 연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아내는 다시 함께하자는 의사를 표명했고, 제가 한국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후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저는 제 수입의 절반을 아내에게 주려고 했으나 아내는 전액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이를 거절하자 아내는 친정집으로 갔고, 제 비자 신청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를 비난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아내는 3년 전 제가 다른 여성과 나눈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제가 3년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하지 못해 혼자서는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저는 현재 온라인으로 일하며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도 없습니다. 제가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지연 상담위원 /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창립 50주년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새 회관 (2)

2007년 12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 완공 및 입주
2008년 3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 신축 기념식

무수한 고비를 넘긴 건축과정

2000년 9월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처음으로 건물 수리에 관한 제안이 있었다. 그리고 그해 10월 정기 이사회에서 건축후원회 구성이 제안되었으며, 11월에는 건물 수리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2002년 11월 정기 이사회에서는 수리보다는 신축이 현실적이라는 제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건축위원은 김춘봉 · 홍란희 · 차명희 이사, 조대연 감사와 곽배희 소장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 김춘봉 · 홍란희 이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2005년 2월 회관신축을 위해 건물 철거에 들어가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사회에서 논의가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하여 건물 신축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이사들을 끝까지 설득하여 건물 신축에 대해 이사 전원의 합의를 이끌어낸 당시 윤후정 이사장의 결정적 역할이 없었다면 아마도 건물 신축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2002년 12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건축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이 기간에 건축설계사로는 일건건축을, 시공사로는 주식회사 이화공영을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건축 일정을 본격화하였다.

2003년 8월 영등포구청에서 건축허가서를 받았으며, 2004년 12월 임시 이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상담소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한 재정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기존의 건축 결정을 다시 확인하였다.

2005년 1월 말에는 건물 신축을 위해 상담소가 여성백인회관 근처에 위치한 세실Ⅱ빌딩으로 이사를 했다. 2년 반 정도 걸리는 새 회관 신축공사 기간 동안 법률구조사업을 계속해나갈 임시 사무실이었다.

2005년 2월 법무부로부터 건축승인을 받아, 2005년 2월 4일 건축물 착공 신고 후 철거를 시작하였다.

2005년 4월에는 (주)일건건축사무소에 설계를 부탁하여 6월에 기본설계가 완성되었다. 재건축 할 상담소 건물은 현재의 대지 826㎡(250평)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이며, 이 가운데 5개 층을 상담소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여 법률구조 사업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건축 설계 당시부터 새 회관은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향후 100년을 내다보며 번민하는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튼튼하고 건실한 집을 짓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2005년 6월 15일에는 내외귀빈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회관 건축의 역사적인 장정을 시작하는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은 김춘봉 건축위원장의 인사말씀, 곽배희 소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새로운 회관 설계 · 감리사인 ㈜ 일건 황일인 회장의 건축계획 보고가 있었으며 김원기 국회의장, 김승규 법무부장관, 이명박 서울시장, 최연희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장하진 여성부장관, 송기홍 가정법원장, 김애실 국회여성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이화여대 중창단의 축가와 이해동 목사, 김성수 주교의 축하기도에 이어 참석자 전원의 첫 삽 뜨기 행사로 기공식이 마무리 되었다.

편집부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특별기획

가정폭력예방 지침** 둥지교실 VIII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 (2)

Ⅰ. 정신건강의 개요

(1) 정신건강 소개

'정신건강'이란 주관적으로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과 만족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객관적으로 정신장애의 소견을 나타내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맡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로 특정된다.[1)]

세계보건기구(WHO)는 정신건강을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깨닫고, 삶에서 발생하는 정상적 범위의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으며, 생산적으로 일을 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고, 개인이 속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안녕의 상태로 정의하였다.[2)]

정신질환은 복잡하고 다양한 생물학적 원인에서 비롯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여타 신체 질환과 유사하지만, 동시에 다른 심리적 ·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어느 한 가지로 단순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3)] 일반적으로 정신과에서는 인간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 생물학적 · 심리적 · 사회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치료도 각 개인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약물치료, 정신치료 및 사회적인 치료를 실시하여 환자가 더불

** 상담소는 일찍부터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의 문제를 제기하여 가정폭력특례법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가정폭력행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및 중단, 재발방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족관계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둥지교실 강좌는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통하여 법적 처분을 이행하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자기성찰과 태도변화를 도움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는 데 매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가정폭력예방지침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 상담소는, 이번에 8차로 「둥지교실 –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를 발행하였다.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본 상담소에서 진행한 '둥지교실' 강의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 지침서는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을 챙기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것이기에 〈가정상담〉에도 이 자료를 게재한다.

1) 박영남(2012), 「정신건강의학의 새로운 도전 : 증상 치료에서 정신건강의 증진으로」, 신경정신의학 51(3), p102.

2) 우종민, 백종우, 이주영(2010), 「정신건강증진의 개념과 발전 방향」, 신경정신의학 49(2), p164.

3)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광주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2018), 「일반 시민의 정신의학적 약물치료에 대한 편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태도」, p51.

어 최대한 건강을 회복하도록 노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4] 이러한 점이 상담영역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신건강 이해'의 목적 및 효과

최근 들어 자살, 정신외상, 약물 문제 등 정신건강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며[5]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 국민적인 트라우마를 안겨줌과 동시에 확진자와 유가족뿐만이 아닌 전체 국민 개개인의 정신건강에도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6]이 클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민 절반 가까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였다.[7]

정신질환은 다른 질병보다 병증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그로 인해 개인 및 가정경제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빠질 수 있으며,[8] 심각한 사고와 사건을 일으키는 사회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신건강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사소한 질병이 그대로 방치되어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개인 스스로 정신건강에 이를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상황이 악화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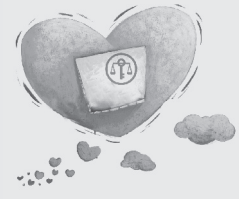
그러나 정신질환은 다른 신체질병과 동일하게 부끄럽게 여겨질 필요가 없고, 대부분 정신질환은 조기발견 및 개입을 통해 좋은 예후를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9]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나를 비롯한 타인을 이해하는 시작점이 되고, 서로의 마음에 대한 이해는 곧 삶을 잘 살아가는 능력에 기여한다.

고맙습니다

2024년 2월 자원봉사자

- **야간상담을 해주신**
  김소이, 이승주, 천정환 변호사님

- **대학생 자원봉사**
  김지원, 박민제 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헌, 천정환, 이현혜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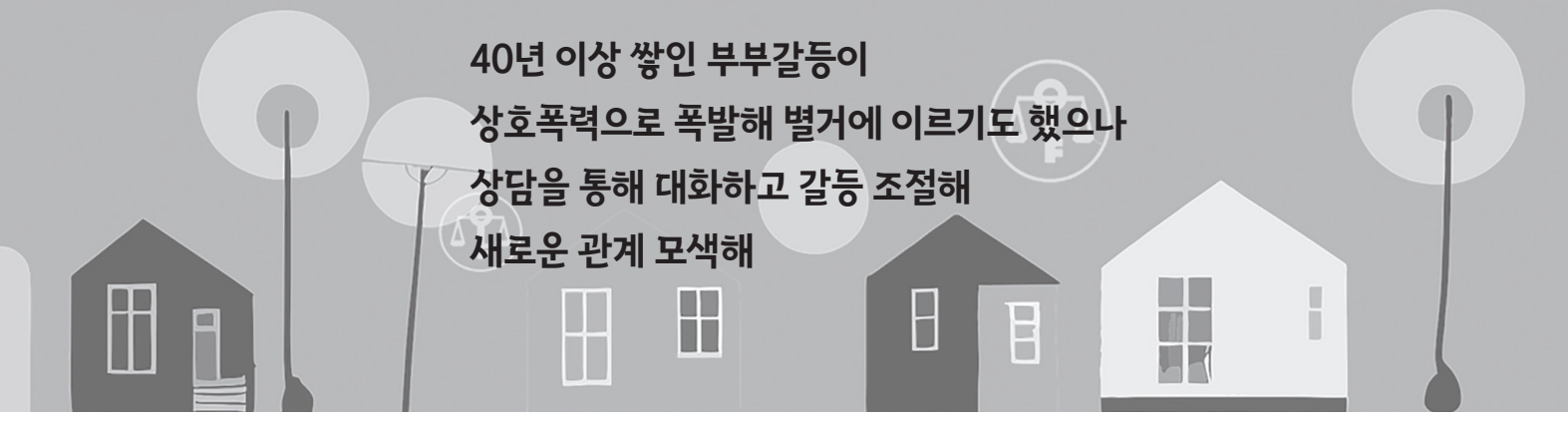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4) 국립정신건강센터(2010).
5) 박영남(2013), 「정신건강 증진의 이해와 적용」,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p2.
6) 이은환(2020), 「코로나 19세대, 정신건강 안녕한가!」, 경기연구원, p4.
7) 위의 논문, p8.
8) 김길원(2016), 「〈건강이 최고〉 정신건강이 '삶의 질' 좌우한다」, 연합뉴스
9) 보건복지부(2016), 『정신질환 실태조사(2016)』



40년 이상 쌓인 부부갈등이 상호폭력으로 폭발해 별거에 이르기도 했으나 상담을 통해 대화하고 갈등 조절해 새로운 관계 모색해

2021버1*협박, 폭행 / 2021버1***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5회,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6회,
부부상담 4회 등 15회

상담기간

2021. 7. 19. ~ 2022. 1. 17.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지 40년이 경과하였고 부부 사이에 1녀 1남(40세, 39세)이 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27년 6개월을 근무하다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하면서 일을 하고, 아내는 자영업을 한다.

2021년 3월 사건당일 아내가 술을 먹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남편이 아내에게 "때려잡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협박하였는데 격분한 아내가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을 손으로 밀쳐 침대 밑으로 떨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또 이튿날 남편은 아내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격분하여 팔뚝을 잡아 밀쳐 장롱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와 같이 부부는 상호간 폭력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남편은 사건 이후 집을 나와 딸 집에서 지내다 월셋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으며, 아내와는 만나고 싶지도 상담을 같이 받고 싶지도 않다고 하였다. 지금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하면서 당분간 이렇게 떨어져 지낼 것이라고 하였다. 아내와의 갈등원인으로 아내의 의심, 아내가 자신을 무식하다고 비난한 점을 꼽으며, 아들과 딸도 이혼을 권한다고 하면서 이혼의사와 조건도 밝혔다.

아내는 자신이 결혼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며, 남편도 열심히 일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남편과의 갈등원인으로 자신이 2009년과 2016년에 강도를 당하여 대수술을 하고 트라우마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돈만 찾아오라고 한 점, 13년 전부터 각방 생활을 하면서 스킨십을 거부하여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점,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점, 남편이 다투면 수시로 집을 나갔고 밤새워 화투를 쳤던 점 등을 꼽았다. 하지만 결혼생활의 유지를 바랐다.

부부는 각 개별상담을 통하여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털어내고 자신이 진정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재인식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11월 초순에 남편은 집에 돌아가기로 아내와 합의하였으며 서로 바라는 바를 공유하고 실천사항을 합의하였다. 아내는 남편이 회피 또는 거짓말하지 않기, 전화하면 꼭 받고 못 받은 경우 리콜하기, 아내를 우선순위에 둘 것, 집에서 담배 피우지 말기, 잘 씻기, 말조심하기 등을 바랐고, 남편은 아내에게 과거사 언급하지 말기, 시가 식구 또는 아이들 비난하지 말기, 부부싸움 시 현재 문제된 것만 다루기, 밤에 잠을 못 자게 하지 말기 등

을 바랐다.

재결합 후 아내는 남편이 이전보다 노력하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과거에 맺힌 응어리가 있다고 하면서 남편이 조금만 참아주기를 바랐다. 남편 역시 아내가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조금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노력해 주기를 바랐다. 사건당시 부부관계만족도를 아내는 10점 만점에 2점, 남편은 0점으로, 종결상담시는 부부 모두 6~7점으로 평가하였다. 부부 모두 현재 상황에 만족해 하였으며 향후 부부관계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버2**존속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들)	개별상담 10회, 전화상담 1회
피해자(아버지)	전화상담 1회
어머니	전화상담 1회
등 13회	

상담기간

2021. 9. 3. ~ 2022. 3. 21.

상담경과

행위자는 2020년 12월 사건당일 피해자(아버지)와 전투기 '미그기'가 미제냐, 북한제냐 하는 문제로 말다툼 후 병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을 하여 본소에 6개월간 상담위탁되었다.

행위자는 중증장애인으로 미혼이며 부모와 함께 생활한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비 일부를 집의 공과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한다. 정신과 입원 경험이 있으며 현재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 행위자는 10대 때부터 일을 하였으며 많은 일을 하였지만 한 곳에서 1년 이상 일을 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일한 기간이 4년이 채 안된다. 일을 하지 않은지 7년 되었고 일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 일을 하고 싶지도 않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 어머니에게는 연민의 마음이 있지만,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반면, 부모는 행위자가 대장 노릇을 하려 하고 부친에게 욕하고, 모친을 쥐어박고 발로 차기도 하는 등 한집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였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도 몇 개월이 지나면 나오고 더 심해지니까 그러지도 못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행위자는 상담자에게 부모에 대한 감정을 조절하고, 이해하며, 수용하는 마음으로 지내겠다고 다짐하였으나 실제 생활에서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담 종결 즈음 다시 사건이 발생하였고, 행위자의 부모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져 부모가 둘째 아들 집에 가서 지내고 행위자는 혼자 지내게 되었다. 행위자는 성인이므로 부모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살아야 갈 등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혼자 살 수 없는 형편이므로 부모와 같이 살아야 하는 점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자신이 화를 조절하며 잘 지내야 하는데 이번에도 잘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성하였다. 접근금지 결정 이후 행위자에게 집을 내주고 둘째 아들 집으로 가서 지내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향후 화를 잘 조절하고 폭력을 재발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1버1***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2회, 교육강좌 4회(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 집단상담 4회(비대면 실시)
등 13회	

상담기간

2021. 9. 13. ~ 2022. 3. 17.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지 48년이 경과하였고, 부부 사이에 1녀 1남(48세, 47세)이 있다. 행위자는 피해자와 함께 협력목사로 목회를 하다 은퇴하였고, 척추장애가 있어 보행이 불편하며 장애연금을 수령한다.

행위자에 의하면, 피해자가 행위자와 요양보호사와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고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행위자가 이를 거부한 상태에서 본 사건이 발생하였다. 행위자는 2021년 1월 사건당일 피해자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밀어 매트리스로 넘어뜨린 후 몸 위로 올라타 양손을 잡아 누르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10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그 결과 본소에 6개월간 상담위탁되었다.

사건 발생후 피해자는 행위자와 같이 사는 것을 거부하여 아들이 피해자에게 집을 구하여 주었고 행위자가 받는 연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주기로 가족들 간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는 연금의 50%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의 의심을 병이라고 하면서 병을 이유로 이혼할 수 없고, 자신이 아플 때 돌봐준 피해자가 아프므로 이제는 자신이 돌봐주어야 하며, 종교적인 이유로도 이혼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었다. 행위자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집에 들이기가 겁이 난다고 하며 대부분 자신이 감당하고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은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냈다.

행위자는 상담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혼을 바라지 않지만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정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024년 2월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진행 현황 〉

구분	프로그램명	날짜	참석인원	주제	강사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 가족상담	연중			본소 상담위원
	라오니모임	2/1	11명	의사소통 기술	장희숙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15	9명	부부관계 – 감사와 사과	
가정폭력행위자 성행교정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본소 상담위원
	집단상담	2/7	14명	오게된 경위,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2/14	20명	부모자녀, 가깝고도 먼 사이	
		2/21	15명	동상이몽, 우리 부부가 꾸는 다른 꿈	
		2/28	13명	딱 한 가지, 우리가 서로 바꾸고 싶은 것	
	둥지교실	2/7	28명	가장 적절한 것을 택하라 : Stress를 Strength로② (+선택치료)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2/22	47명	인간관계와 너의 의미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어떻게 할까요

부모와 자녀 ❶ - 친자의 성, 친생자 ①

●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

Q 문 1 | 결혼을 앞둔 남성인데 여자친구는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의 성을 따르게 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두 사람 중 누구의 성을 따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뜻을 존중해 주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 두 분이 자녀의 성을 아내의 성으로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그러한 사실에 관한 협의서를 혼인신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

● 혼인 외 자가 인지된 경우라도 종전의 성을 계속 쓸 수 있다

Q 문 2 | 사실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헤어져 10여 년간 혼자 키워 왔습니다. 아이는 제 성을 따라 출생신고를 했었는데 최근 아이 아버지 소식을 알게 되어 인지청구와 양육비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 아버지 이름을 등록부상 밝히게 되면 아이의 성도 아버지 성을 따라 바뀔까 두렵습니다. 아이의 성을 그대로 쓰게 할 수 없는지요?

A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5항).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는 것에 협의가 되었다면 인지신고 시 신고서에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와 내용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55조).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먼저 자녀의 생부와 협의를 해 보시고 협의가 안 된다면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본 계속 사용허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5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호).

●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

Q 문 3 | 남편은 평소 저를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딸아이를 성추행한 일도 있습니다. 이 일로 남편은 교도소에 복역 중인데 저는 이혼하고 아이와 함께 살고자 합니다. 딸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제 성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가능할까요?

A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따라서 성을 변경해야만 자녀가 안정을 찾고 행복할 수 있다면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본변경 허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Q 1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년 전부터 어머니는 치매와 건강 악화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2020년부터 외동딸인 제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사시던 오래된 단독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동안 그 집은 늘 비워두었습니다. 어머니의 간병비와 병원비가 한 달에 400만 원 이상 들기에 더 이상 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머니 소유의 집을 매매하여 어머니의 간병비와 치료비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법원은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피성년후견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일상생활 및 신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재산관리 등에 포괄적인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47조).

더불어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성년후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권한을 제한하고 이러한 제한된 권한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또한 법원은 성년후견개시결정을 하면서, 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이때 법원의 허가를 구하여 대리권을 행사해야 하는 사항도 명시합니다.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은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리권등목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 금전을 빌리는 행위
2.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3. 부동산의 처분이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소송행위
5.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등을 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먼저 대리권범위에 대해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해보시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대리권을 행사해야 할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한 처분명령”을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부동산 매도 허가를 받은 이후 부동산을 매매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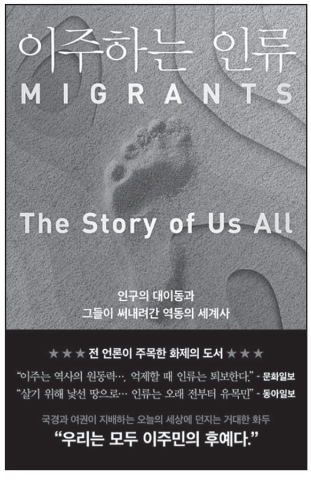
조은경 상담위원

이주하는 인류

인구의 대이동과 그들이 써 내려간 역동의 세계사

샘 밀러 지음 최정숙 옮김

미래의 창, 2024(초판 4쇄)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으니 이방인의 심정을 알지 않느냐?"(탈출기 23장 9절). 이주민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의 이 구절이 늘 떠오른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필레몬과 바우키스'도 생각난다. 이방인으로 변신해 방문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극진히 대접하여 신을 감명시키고 값진 보상을 받은 노부부. 낯선 이들에게 친절히 대하라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의 가르침 같은 것일까. 아울러 한국전쟁 이후 1970, 80년대를 거쳐 파독 광부, 간호사 그리고 중동 지방에 노동자로 파견되었던 선대의 삶, 우리도 겪었던 이주 노동자의 삶도 생각한다. 지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은 이주 노동자 없이 유지하기 어려운 많은 노동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우리보다 피부색 짙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 참으로 경우 없을 때가 많고, 가차 없을 때도 많다. 최소한 역지사지라도 해 보았으면 싶은 그런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적지 않다. 마치 우리는 이방인이었던 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하지만 몇십 년 전만 돌아보아도 우리에게도 이주 노동자의 삶은 낯설지 않다. 그리고 여기 인류의 역사 전반이 이동의 역사였다고 말하는 책이 있다. 『이주하는 인류』 다.

"메소포타미아 이전, 약 1만 2천 년 전에는 모두가 이주민이었다. 영구적 거주지를 가진 사람이 없었으니 누구나 이주민이었던 것이다." (48쪽)

"성경에서는 이주에 대한 이야기를 찾기 위해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대홍수 이후 인구 재건에 나서고, 홍해를 건너 도피하는 등 성경 어디에나 이주민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 (56쪽)

"이주민들은 이제 정주주의 세계에서는 아무도 원치 않거나 들어갈 자격이 없거나 그 두 가지 다인 사람들이 된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 모든 일에 대해 쉽게 비난받을 수 있어, 적 아니면 희생양이 된다. 이는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헤아리지 못하는 공감 능력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의 부족은 때때로 배를 타고 망명하다 죽은 아이가 해변에서 발견되거나 아니면 냉동 트럭에서 서로 얽힌 채 얼어 죽은 난민 집단이 발견되거나 하면 그때서야 조금 채워진다." (349쪽)

성경의 시대로부터 여권을 가지고 세계를 넘나드는 현대세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 이주민의 후예다. 저자에 의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주하는 종이며, 지상에 사는 그 어떤 포유류보다 더 강한 이주 본능을 지니고 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대체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어떤 이들은 아예 방랑의 삶을 살기도 한다. 집과 영구 거주지라는 개념은 인류의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주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저자는 인류 이주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오늘날 마주한 이주와 이민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제안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값싼 노동력으로만 이주민을 대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돌아보아야 할 시기이다.

지은이 샘 밀러는 런던에서 태어나 자랐으나 성인이 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인도에서 지냈다. 캠브리지대학교에서 역사와 정치를 전공했다. BBC의 뉴델리 특파원을 지냈으며 동 방송사의 남아시아 관련 시사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했다.

이숙현 편집부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동계방학을 맞아 본소에서 실무수습 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소감을 요약하여 싣는다.

김 려 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가족의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를 희망하여 온 만큼, 이혼, 친권 등 가사 분야부터 재산분할 등의 민사 분야, 가정 내 학대 등 형사 분야까지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세분화된 분야에서의 법률실무를 경험해보기 위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무수습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주 간 소장작성, 상담참관 등 다양한 과제들을 수행하며, 가사 분야에 이렇게나 많은 종류의 소가 존재하였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가족법 및 그 판례가 빠르게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하여 제사주재자 지정에 있어 남녀의 차별을 없앤 2023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을 읽어보고 판례 평석을 작성해보며, 시대별로 변화하는 판례의 태도와 가치관을 사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며, 나는 관습을 답습해오지는 않았는지, 변화하고 있는 사회상을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성찰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 끝에, 규범과 관습이라는 잣대에 머무르는 법조인보다는 "왜"라는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열린 사고를 하는 법조인이 되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쿨에서 공부해오며, "법조인은 냉철하여야 한다"라는 조언을 들으며 저의 역할에 대하여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주여성 문제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주제에 대하여는 마음이 가장 먼저 움직여 왔기에 활동가의 마음과 법조인으로서의 행동규범이 늘 충돌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실무수습에서의 경험을 통해, 두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상담참관을 하며 가장 인상이 깊었던 점은 의뢰인들이 상담 말미에 덧붙인 "그래도 말씀을 드리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네요"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법조인으로서는 분쟁의 해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겠지만,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특성상 의뢰인의 깊은 고민을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2주간의 실무수습에서의 가장 값진 경험은, 나는 어떤 법조인이 될 것인지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실무수습 경험을 마음에 담아, 의뢰인의 고민 속 행간의 의미를 읽고 지지와 격려를 보낼 수 있는 "따뜻한" 변호사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2주 동안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상담위원님들과 변호사님들 그리고 동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 남 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2주간 실무수습을 진행하며, 가사소송 전반에 대한 실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조인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상담에 참관하고, 법률구조의뢰서와 소장들을 읽고 실제로 작성해보는 과정에서 가족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사 사건에 대한 관심으로 가정법률상담소에 실습을 나가기를 희망하였지만, 가족법에 대하여 제대로 공부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습을 완성도 있게 진행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례집 「어떻게 할까요」를 읽고 다양한 판례들

을 찾아보면서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한 뒤, 실제 사례들에 적용하면서 가족법에 대해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건의 사건기록들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접 기록들을 보면서 사실관계와 청구취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가사소송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친양자 제도, 재산상속, 후견제도 등 제가 막연히 생각하였던 것보다 가족법이 방대하고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률구조의 선구적인 역할을 해온 법률구조법인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하면서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론과 달리 실제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다방면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소송 외의 방법까지도 살펴보는 등, 법조인으로서 넓은 시야와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연을 가진 내담자분들의 상담을 참관하면서, 법률구조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또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2주 동안 매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수습 학생들이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모든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재 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교에서 가족법을 배우고 난 후, 실제로 가족법이 활용되는 현장을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실무수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소에 오기 전에는 실무수습을 하고 나면 가족법을 보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단순한 기대만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이상의 것들을 배우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실무수습 기간 야간상담뿐 아니라 상담소와 서울가정법원에서의 상담 등 여러 건의 상담을 참관하였고, 소장과 법률구조의뢰서 등을 직접 작성해 보거나, 사이버 상담실에 내담자가 올린 질문에 대한 답변 작성과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가정폭력피해자 자조 모임(라오니 모임) 참관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러 상담을 참관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내담자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말들 속에서 내담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위원님들께서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적절한 시점에 알맞은 질문을 던져 내담자가 원하는 것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모습을 보며 내담자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상담실에 올라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고민하던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 가사사건은 사례집에 있는 문제들처럼 명확하게 적용되는 판례가 있거나 법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새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내용이 실무에 적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법조인이 된다면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담소에서 진행되는 여러 프로그램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조모임인 라오니 모임이었습니다. 라오니 모임을 참관하기 전에는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행위자와 신속하게 분리하고 이혼 절차를 돕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가정폭력 이후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들을 보면서 가정의 소중함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관계가 회복된 내담자의 미소를 보면서 가사사건에서의 해결책은 다양하며, 법률적인 해결책만이 정답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곧 사회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로 이어진다." 처음 상담소 홈페이지를 보면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문구였습니다. 실무수습을 하면서 상담소의 모든 분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짧은 2주의 기간이었지만 이곳에서 실무수습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수습 동안 느끼고 배운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남은 학업을 잘 마쳐 가정과 나아가 사회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 정기 전기 이사회

본소의 2024년도 정기 전기 이사회가 지난 2월 22일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는 차명희 이사장, 김의재, 장명수, 곽배희, 조대연, 임재연, 김병후, 박영립, 김상용 이사와 최문원 감사가 참석하였으며, 회의는 차명희 이사장의 개회, 전회 회의록 요약 보고, 감사보고,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건으로는 2023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기타 안건으로 오는 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상담소 이사와 감사 선출의 건에 대해 일정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정기총회 일정에 대해서는 실무진에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관련사진 2면)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에서는 가정문제의 예방과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김병후 원장(정신과전문의, 본소 이사)의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2월22일 본소 대강당에서 올해 첫 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날 강의주제는 '행복의 조건과 너의 의미'로 강사는 주체적으로 살면서도 동시에 관계를 맺으며 교류를 통해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우리는 각자 '나'에 대해서 그리고 '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생명체에게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라는 존재가 필요하며 결국 우리의 실존은 '너'와 '나'의 유기적인 관계에 의한 것으로 이는 행복의 조건과도 연결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강의를 마쳤다. 이번 강의는 코로나로 지난 몇 해 동안 온라인에서 비대면 진행해오다 다시 대면강의로 전환하고 시행된 첫 공개강좌여서 의미가 컸다. 참석자들은 행복의 조건과 관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공개강좌로 진행되는 것을 반기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대면강의로 진행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다음 강의는 '마음이란' 주제로 5월23일(목)에 예정되어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관련사진 2면)

2024년 상반기 자원봉사자 법교육

본소의 2024년 상반기 봉사활동에 지원한 자원봉사자들 대상의 법교육이 1월 28일과 29일에 진행되었다. 교육은 상담소의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이해와 가족법 및 가정폭력 관련 법 교육으로 58명의 대학생 자원봉 사지원자들이 참여하였고 조은경 상담위원이 강의하였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진행 중이다.

● **겨울방학 대학생 현장실습**

2024.1.2.-2024.2.28.(이화여대)

– 장다원, 최서연

2024.1.2.-2024.2.19.(서울대)

– 서동석

2024.1.31.-2024.2.29.(동국대)
– 김민서, 이정무, 최서원, 최회준

● 출장법교육 및 순회상담

2.1. 비혼모시설 이용자 대상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2.20. 강서지역자활센터 이용자 대상
생활법률강의
- 김민선 상담위원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박효원, 고현희, 김지은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2월 1일, 23일 법무부 가족법 개정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16일 김현옥 재무회계과장과 상담소 내부 회계감사를 받았다. 29일 복미영 상담위원과 함께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4년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기술평가심사회'에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2월 1일과 29일에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1조정)의 이혼등 사건을 조정하였고, 16일에는 동 법원 가사2단독의 이혼등 사건을 조정하였다.

2024년 2월 상담통계

총 건수 4,500				
법률상담 (3,836)				
면접	전화	인터넷	서신	지상
916	2,870	47	2	1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503	52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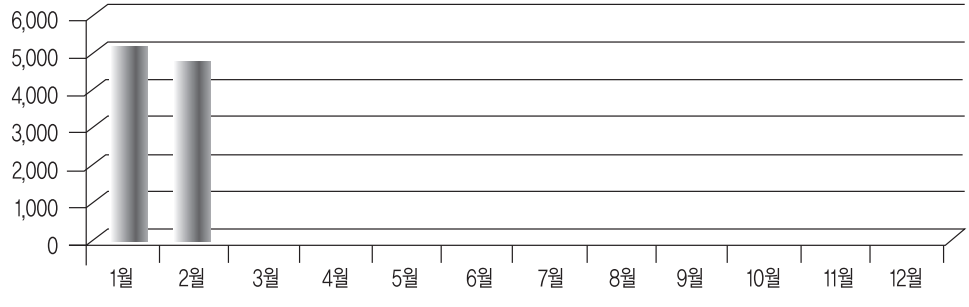
• 인터넷 정보 이용 166,597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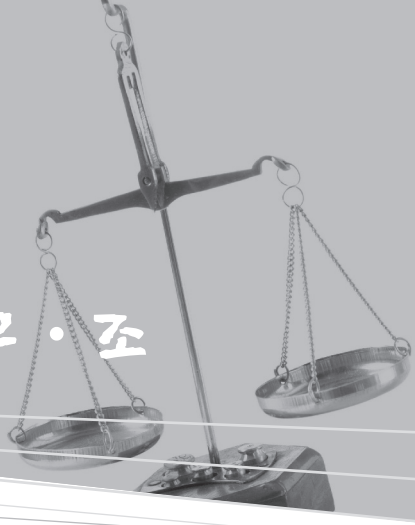
2024년 2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500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3,836건(85.2%), 화해조정 503건(11.2%), 소장 등 서류작성 52건(1.2%), 소송구조 109건(2.4%)이었다.

법률상담 3,836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4년 1월에 비해 남녀관계(0.1%→0.2%), 부부갈등(3.4%→3.8%), 이혼(20.2%→20.4%), 위자료·재산분할(5.7%→7.4%), 친권·양육권(4.3%→4.5%), 양육비(8.4%→8.7%), 인지(1.3%→1.4%), 혼인무효·취소(0.6%→0.7%), 유언·상속(6.9%→7.4%), 친양자(0.5%→0.6%), 개명(1.0%→1.4%), 성변경(1.2%→1.4%), 성년후견(2.6%→2.9%), 가사절차(4.5%→10.0%), 부동산(0.1%→0.2%), 채권·채무(0.5%→0.6%), 파산(2.3%→2.7%), 민사절차(0.1%→0.2%), 형사절차(0.2%→0.3%), 형사기타(0.5%→0.6%)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3,836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916건(23.9%), 전화상담 2,870건(74.8%), 인터넷상담 47건(1.2%), 서신상담 2건(0.1%),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24년 월별 총건수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공갈과 협박으로 아내를 학대한 남편과의 이혼 조정

법률구조 2023-1-102

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20대)와 피고(남, 30대)는 201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강요와 협박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임신하여 피고의 감시 아래 주위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혼인 생활을 하였다. 피고는 공갈 협박으로 원고가 어느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주변 지리도 모르는 타지에서 종일 집에 갇혀 생활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계속된 협박과 부당한 대우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지내다 불안증,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렸고 자살시도를 하였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여러 여성을 만나며 부정행위를 하였고,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 촬영을 강요하고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여 강요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서 벗어나고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여 임시보호소에 입소하였고, 피고와의 이혼을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의정부지방법원 2024. 1. 2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모두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5. 원고는 피고에게 2024.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는 날까지 양육비로 다음과 같은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가. 2024. 1.부터 2024. 6.까지 :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나. 2024. 7.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중학교 입학하기 전달까지 : 1인당 월 30만 원씩

다. 사건본인들이 각 중학교 입학하는 달부터 각 성년이 되는 날까지 : 1인당 월 40만 원씩

6. 원고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1) 2024. 1.부터 2025. 12.까지: 월 1회,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2:00부터 16:00까지(당일면접)

2) 2026. 1.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회,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0:00부터 18:00까지(당일면접)

3)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4) 설날, 추석 연휴기간 중 :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나. 방법: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피고와 미리 협의한 장소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을 한 후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피고와 협의한 장소로 다시 데려다준다.

다.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면접교섭 예정일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미리 알린 후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라.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마. 피고는 원고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8.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장기간 별거 중인 배우자의 친생자녀가 아님을 확인하는 판결

법률구조 2023-1-160

담당 : 김민선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내용 : 원고(여, 60대)는 피고 2(남, 50대)와 법률혼 부부로 1989년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1997년경부터 26년 넘게 별거하였다. 원고는 2002년경 소외인을 만나게 되어 피고 1(여, 20대)을 출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1의 출생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양육하였는데, 2021. 12.경 피고 1의 친부인 소외인이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에서 피고 1은 원고와 소외인의 친자임이 인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원고는 2022. 2.경 피고 1에 대하여 출생확인을 받았고, 2023. 2.경 피고 2와 사이에 이혼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10. 26.)

1.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 지급 요청에 폭언을 퍼부은 전남편에 대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결정

법률구조 2023-1-168

담당 : 김학수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30대)과 상대방(남, 30대)은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3년 협의이혼을 하였고, 둘 사이에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고 있다. 2013년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고, 청구인이 매월 양육비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상대방이 구두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혼 후 3년간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으나, 2016년부터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7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였고, 2018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상대방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한 바 없다. 청구인이 어렵게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내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폭언을 퍼부으며 양육비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전주지방법원 2023. 11. 29.)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30,000,000원을 지급하되, 2023. 12. 29.까지 20,000,000원, 2024. 2. 28.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상대방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4.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800,000원을 지급한다.

3.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심판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를 양육자가 부담하기로 한 협의의 부당함을 인정하여 양육비 증액 결정

법률구조 2023-1-287

담당 : 심재범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남, 50대)과 상대방(여, 40대)은 200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둘 사이에 사건본인들과 성년인 자녀를 두었으나 2015년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고, 양육비는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혼 당시에는 청구인의 경제적 여건이 상대방보다 넉넉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으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청구인의 사업이 어려움에 빠져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이 현저히 나빠졌다. 청구인은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2023년 6월경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청구인은 성년인 된 자녀와 함께 사건본인들을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다. 성년인 첫째 자녀는 대학생이지만 여전히 청구인의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둘째 자녀는 곧 대학 진학 예정이며, 다른 자녀는 예체능 수업을 받고 있어 청구인이 세 자녀의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청구인은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1. 24.)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24.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정폭력 등을 원인으로 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법률구조 2023-1-201

담당 : 박슬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70대)는 피고(남, 80대)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자녀들을 두고 혼인생활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혼인 생활 초기부터 잦은 음주로 인해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또한 피고는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 원고가 피고의 전혼자녀들과 피고 모친까지 모시며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폭력적인 행위들과 무책임한 태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9. 2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2. 31.까지 2억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국민연금 등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혼인 및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고, 분쟁을 제기하지 아니하며(부제소합의),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모두 각 그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4년 3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3월 25일, 4월 22일, 5월 27일)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일시 : 2024년 5월, 8월, 11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총 4회)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강의방법 및 장소 : 대면강의, 본소 8층 A 강의실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 의 제 목
5월 23일	마음이란?
8월 22일	과학으로 본 분노
11월 21일	부부대화법

생활법률강좌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 관련 법률·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 ·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일시 : 2024년 8월 중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후원 : SAMSUNG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둥지교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일 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진 행 : 이서원 대표(한국감정케어센터)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일정 및 강의제목

일 정	강 의 제 목	강사
3월 13일	잘 한 나를 칭찬하라 : Stress를 Strength로③ (+격려치료)	이서원 대표 (한국 감정케어 센터)
4월 17일	화난 나를 인정하라 : 火解하기① (+인정치료)	
5월 8일	겉절이 화와 묵은지 화 : 火解하기② (+뿌리치료)	
6월 12일	낼 화라면 멋지게 내자 : 火解하기③ (+표현치료)	
7월 10일	삶에 대한 불만족과 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성격 특성 (+변증법적 행동치료)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 학과)
8월 7일	상처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트라우마 (+이야기 치료)	
9월 11일	무력감과 방향 상실을 초래하는 우울 (+인지행동치료)	
10월 16일	반복된 부정적 경험이 만들어 낸 불안 (+수용전념치료)	
11월 6일	생각과 감정, 그리고 지각의 비틀림을 가져오는 갈망 (+동기강화상담)	
12월 11일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기표현, 자살 (+자기발견적 치료)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 · 중 · 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연수기간 : 2025년 1월 14일(화) ~16일(목), 1일 5시간, 3일간
▶ 이수시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연수대상 : 서울 · 전국 초 · 중 · 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교과과정 - 가족법 :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 혼인 관련 법률
이혼 관련 법률 / 부모 · 자녀 관련 법률 / 후견 관련 법률 /
상속 · 유언 · 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개인파산 · 면책 · 개인회생 관련 법률

※ 교육일정 및 강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일 시 ▶
2024년 8월 중

대 상▶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1.「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SAMSUNG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상상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www.lawhome.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